

2005년

청풍명월21 실천사업보고서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차례

- 2005년 청풍명월21 사업일지 2
- 기획사업 5
 - 민·관·군 환경발전 대토론회 7
 - 제13회 세계물의를날 기념 9
 - 도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어머니환경학교) 11
- 시책사업 13
 - 물사랑 투어 15
 -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시·군 관계자 워크숍 17
 -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발전 토론회 22
- 공모사업 27
 -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29
 -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31
 -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33
 - 청정도시의 지향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시민실천 33
 - 냉장고 크린화 운동 45
 -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50
- 교육·홍보사업 69
 - 청풍명월21 홍보 및 환경교육 71
 - 청풍명월21 소식지 제작 72
- 교류사업 75

[부 록]

- 1. 충청북도지방의제21 시·군관계자 워크숍 발췌분 83
 - 1)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도약방안제안 83
 - 2) 행정과 지방의제21 협력방안 102
- 2. 충청북도 사회환경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 요약 10

2005년 청풍명월21 사업일지

2월	제11차 운영위원회 개최 제1차 임원회의 개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자연친화적 숲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참가
3월	제7차 정기총회 개최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 세계물의 날 기념 청주심포지엄 공동주관, 제2차 임원회의 개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제 25차 운영위원회 참석 지방의제21 제도화 관련 토론회 참가 제1회 전국지방의제21 활동가 워크숍 참가
4월	상반기 환경교육 실시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전개 청정환경복원 세미나 (3회)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제1차 분과위원장 및 간사 회의
5월	민·관·군 환경발전 대 토론회 개최 지역환경계획의 시민참여 활성화 토론회 참가
6월	제 12차 운영위원회 개최, 물 사랑 투어 실시 충북환경교육발전 방안 토론회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회의개최 2005 한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환경교육 한마당 참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제 26차 운영위원회 참석

7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주최 제10회 정책 포럼 참가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교육분과 회의 참석 2005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시·군 관계자 워크숍 기획회의
8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제27차 운영위원회 참석, 제3차 임원회 개최 '2005 지방의제21 리더십 워크숍' 참가 청풍명월21 소식지 제10호 발간 배포
9월	하반기 환경교육 실시 청풍명월21 재작성 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 4개분과위원회 개최,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가 2005년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시·군 관계자(민·관) 워크숍 개최
10월	제13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과 지방의제21 교육사업 혁신전략 워크숍 참가 충청북도 지역의 사회환경교육 실태 조사
11월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발전 토론회 개최 기후변화대응 지역실천 전략 모색 충북 워크숍 주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충북환경정책 포럼 참가 청주 충북지역 마을 만들기 운동 돌아보고 내다보며 워크숍 참가
12월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추진성과 발표회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제11회 정책포럼 참가 제14차 운영위원회 개최 청풍명월21 소식지 제11호 발간 배포

기 획 사 업

민·관·군 환경발전 대토론회

1. 사업개요

·취 지

·도내향토사단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군 환경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유대강화로 환경보전실천운동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일 시 : 2005년 5월 4일(수) 16:00 ~ 20:10

·장 소 : 제 37보병사단(중평) 사령부 기밀실

·참가자 : 80명

- 청풍명월21 위원, 여성단체 임원, 공무원, 기업체 등 30명

- 사단 : 연대장/ 직할대장/ 사단참모, 연대군수과장, 대대/ 직할대 실무자 48명

·추진방향

·37사단과 추진방향위한 기획회의 : 프로그램 및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회의

·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와 향후 충청북도 환경에 대한 군의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지속적으로 군과 협력적인 환경관련 사업 추진 토대 마련

·사업비 : 1,000,000원

2. 추진내용

·사업내용

1)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환경친화적 부대 운용(군수참모)
-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기동대장)
- ③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청풍명월21 부회장)
- ④ 충북환경정책(충청북도 환경과장)
- ⑤ 환경친화기업 사례(LG화학 청주공장 환경안전담당공장장)

2) 전시회

- ① 표어·포스터 경연대회(사단)
- ② 환경상품(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 : 재활용 재생노트, 화장지 등 59종
- ③ 환경관련장비 : 매연측정장비, 수질측정장비, 캔 압축기등 10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장소	비고
15:50~16:00	부대도착/ 환담	집무실	
16:00~16:20	개회(환영사, 인사, 부대소개)	기밀실	
16:20~17:40	토론회 ■주제발표 ① 환경친화적 부대 운용(군수참모)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기동대장) ③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청풍명월21 부회장) ④ 충북환경정책(충청북도 환경과장) ⑤ 환경친화기업 사례(LG화학 청주공장 환경안전담당공장장) ■토 론	”	
17:40~18:00	전 시 관 램	식당앞	
18:00~20:00	만 찬	간부식당	

3. 평가 및 성과

- 지방의제21 실천 축의 일부 그룹인 향토 사단과의 환경현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유대강화 도모에 기여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실천 다짐
- 지역 환경의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존하는 방안 마련 추진



제13회 세계 물의날 기념 청주심포지엄

1. 사업개요

· 취 지

- 세계 물의날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물과 환경의 소중함 일깨워주기 위함
- 댐이 우리 생활에 주는 혜택과 피해에 대해서 논의 하는 자리 마련

· 일 시 : 2005년 3월 21일(월) 14:00 ~ 18:00

· 장 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 참가자 : 100명- 관심있는 도민

· 사업비 : 1,000,000원

2. 내 용

시 간	행 사
13:30~14:00	참 석 등 록
14:00~14:20	개 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김 진 극 (충북대학교 강사, 공학박사) ▪ 국민의례 ▪ 인 사 말 : 안 상 진 세계물의 날 기념 심포지움 대회장 ▪ 격 려 사 : 안민동 충북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장 ▪ 축 사 : 신방웅 충북대학교 총장
14:30~15:30	주제발표 주제 (I) 대청댐의 역할과 혜택 김종섭 / 한밭대학교 교수 주제 (II) 충주댐의 역할과 혜택 김지학 / 충주대학교 교수
15:30~15:40	휴 식

<p>15:40~17:00</p>	<p>종합토론 좌 장 안상진 / 충북대학교 교수 토 론 자 김종운 /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류병로 / 한밭대학교 교수 김홍선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기술이사 전민우 / 충북대학교 교수 장기환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권지역 본부장 정상혁 / 도의원, 도의회 댐 특위위원장 이기우 / 청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진혜 /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상담실장 이재경 / 대원과학대학 교수</p>
<p>17:00~</p>	<p>폐 회 식</p>

3. 평가 및 성과

- 물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자리 마련
- 막연하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강요하는 것 보다는 댐의 역할과 우리에게 주은 혜택으로 인한 중요성 인식제고 기회



도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어머니 환경학교)

1. 사업개요

· 취 지

- 모든 도민이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적게 버리고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적극 홍보 함.
- 생활쓰레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과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해 전 가정과 사회에 확산시킴.
- 일상생활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분리 및 처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임을 인식.

· 사업기간 : 2005년 4월~10월

· 사업대상 : 충청북도 여성단체회원 및 요식업대표(청주, 제천) : 100명

· 사업비 : 3,000,000원

2. 사업주요내용

· 도내 실천사례공모 및 시상 : 6편

· 최우수작 : 나 한사람이라도 열심히 - 송옥순(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 우수작 : 생활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아이디어 제안

Environment Revive Festival(환경 살리기 축제)- 정송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1차, 2차 교육 및 캠페인

· 1차 캠페인 : 성안길, 2차 캠페인 : 제천 변화가

· 쓰레기 현황 및 처리 재활용 : 김광렬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환경을 위한 우리문화 바꾸기 : 문석기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3. 평가 및 성과

-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주부들의 관심제고와 실천의지 동기여부
- 교육을 통해 환경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 쓰레기 감량의 효과 및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도민의식 함양.
- 캠페인을 통한 실천의지를 다짐.



시책사업

물 사랑 투어

1. 사업개요

- 취 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물 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함.
-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10:00 ~ 15:10
- 장 소 : 대청댐, 청주 정수장
- 대상 및 인원 : 30명(청풍명월21 위원, 지방의제 공무원, 도내 환경교육 교사)
- 추진계획 : 수돗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원수 및 정수장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절약 정신을 고양 시키고져 함.
- 사업비 : 500,000원

2. 추진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09:30	09:50	20분	체육관 앞, 인원점검	
09:50	10:30	40분	체육관 출발 → 대청댐 물 문화관 도착	
10:30	11:00	30분	물 문화관 관람	
11:00	11:20	20분	선착장 이동(승선자 명단 작성)	
11:20	12:20	60분	대청호 환경관련 관람	
12:20	13:20	60분	중 식	
13:20	13:50	30분	청주 정수장 이동	
13:50	14:40	50분	청주 정수장, 병물 생산공장 관람	
14:40	15:10	30분	청주 정수장 출발 → 체육관도착(해산)	

3. 평가 및 성과

-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높혀 수돗물 사랑 확산에 기여
- 환경오염원인자(생활하수 및 음식물쓰레기등)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행위 근절로 수질향상에 이바지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사·군 관계자 워크숍

1. 사업개요

◦ 취 지

·충북의제21(청풍명월21)과 도내 기초(시·군)의제21 민간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 모색.

◦ 일 시 : 2005. 9. 29(목) 14:00 ~ 30(금) 12:00

◦ 장 소 :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

◦ 참가자 : 47명(지방의제21 실무자 및 관계공무원)

- 직책별

공 무 원	22명
지방의제21 실무자 및 위원	25명

- 지역별

지역	참가인원	지역	참가인원	지역	참가인원
청 주	3	옥 천	1	단 양	2
충 주	11	영 동	2	증 평	1
제 천	5	진 천	-	충 북	11
청 원	-	괴 산	5		
보 은	2	음 성	4		
	21		12		14

◦ 추진방향

·지속적인 사업으로 매해 연 1회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 지방의제21 발전방향 프로그램, 리더십프로그램, 공동사업 발굴

·실무자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획팀 구성

- 도내 지방의제21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팀 구성

◦ 사업비 : 4,000,000원+참가비





2. 추진내용

◦프로그램

날짜	구성	시 간	내 용
9/29(목)	등 록	13:00~14:00	참가자 접수
		14:00~14:20	인사말 ·협의회 부회장 안상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참가자 소개
	토 론	14:20~15:20	충청북도내 지방의제21 도약 방안 모색 기조발제1 : 광역·기초의제21의 협력방안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유문중 사무처장)-발제문 부록1 기조발제2 : 행정과 의제21 협력방안 (충청북도 환경과 오재현 환경기획담당사무관)- 발제문 부록2
		15:20~15:30	휴식
	마 당	15:30~17:00	[기조발제에 대한 분임토론] - 광역·기초의제21 협력방안(최시영 사무국장) - 행정과 의제21 협력방안 (박정순 사무국장) [시·군 회장단 간담회](이강주 사무국장)
		17:00~17:30	휴식(여장풀기)
		17:30~18:30	브레인스토밍: 각 분임별 논의내용 공유 분임별로 문제점 고민
			18:30~20:30
9/30(금)		07:30~09:00	아침식사
	교육모듬	09:00~12:00	함께하는 리더쉽 (강사 : 김은경 - 세종리더쉽 개발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	해산

○ 워크숍 결과

■ 제1분임 광역의제와 기초의제의 협력방안 분임토의 결과 : 최시영 사무국장

- 지금까지의 논의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초와 광역의 협력방안이라고 한다면 광역에서의 제도화를 통한 기초의제의 사업 및 운영에 따르는 재정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 오늘은 기초와 기초간의 공동현안 발굴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광역에서의 협력방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보자
- 그러기 위한 우리 충북지역에서의 공동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농촌지역 토양오염의 주 원인인 폐비닐 수거의 도농간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보자

- 괴산군의 경우 한해 500트럭분의 비닐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후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밭에서 그냥 태우게 되면서 고추의 생육기간이 짧아져 수확이 줄어들고 있다.
- 도에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적극 활용하자

○괴산댐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괴산 충주) 해소에 의제가 적극 나서자

- 괴산지역 상수도 원수를 왜 충주댐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물 맛 좋은 달래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보자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에 대해 충북지역 의제가 적극 대응하자.

- 온천법 강화(온천수 채수온도 및 유효성분 기준 강화를 통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의 의미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자.

-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면 적어도 하천정비사업 이후 올갱이가 살던 곳은 올갱이가 살 수 있게, 수달이 살던 곳은 수달이 살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교육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환경지도자대학'과 같은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자

○시군별 축제 준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자.

■ 제2분임 행정과 지방의제의 협력방안 분임토의 결과 : 박정순 사무국장

-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행정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솔직한 토론장을 열어 보다 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제의 자리매김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 제2분반의 토론과제라 하겠다.
- 행정과 지방의제21 협력방안에 대한 충청북도 환경기획 담당사무관의 발제를 통하여 지역 의제추진현황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그 실체와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 말하자면 추진기구의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조속한 법령근거 마련이 지적되었고, 미비한 예산지원과 사무처상근요원의 지위와 위상의 재정립 등 업무의 과부하에 대한 충원 문제도 지적되었다.
- 특히 의제의 기본원칙과 실천과정이 지속가능발전에 부합되었는지, 평가와 환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의 추진과 계획이 민관협지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한 지적들이 쏟아졌고 그간의 사업은 환경분야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자각적 평가를 더해 토론의 방향을 환기시켰다. 제2분반은 대체적으로 음성, 청주, 보은, 증평, 영동, 제천 지역의 참가자들이 참여했고 토론의 주요 내용만 요약한다.
-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예산의 확충과 조례제정을 위한 상위법이 마련되지 못하여 조례 제정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 우선적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조직구성이 문제이며 위상을 좌우 할 수 있다.
- 지방의제21은 협치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며 추진 명칭의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 제천의 경우 시민환경지도자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의제21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법 제정등에 노력이 필요하다.
- 괴산의제의 경우 아직 예산이 부족하며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맑은물 먹기 운동을 벌이거나 농약 사용 근절등의 운동도 실천해가야 한다.
- 증평의 경우는 아직 의제수립이 되지 않아 준비중에 있다.
- 충주의제의 경우 복지문제까지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전개하고 있다.
-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 음성지역의 경우는 의제21의 협의체만 구성되어있는 형편이며 지역여건상 인력풀의 구성이 협소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지방의제21과 행정과의 협력방안에 다른 조례의 제정과 각 지역사회단체의 많은 참여를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의 독립된 지위 확보를 위하여 의제 지원금 항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된 불합리함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제21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공무원의 지방의제21 이해증진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회 활동가 교육도 추진되어야 할 덕목이다. 이러한 내용은 충북도의제 차원의 광역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지방의제21 도내 정책아젠다가 요구된다.

○ 결론요약

-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지방의제21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행정과 지방의제21의 협력방안에 따른 관계자 토론을 통하여 지역간의 지방의제21 추진에 따른 넓은 격차를 실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의제 추진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이제 준비중인 곳도 있고, 또 관계자들의 지방의제21 이해도도 다소 깊이를 달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지방의제21의 도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도 의제21에서의 도내 정책아젠다를 함께 수립하거나 도 차원에서의 홍보 및 위상정립에 대한 심심한 고민을 해야 한다.
- 또한 광역차원에서의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의제 발굴과 지원, 공무원의 지방의제21 이해를 위한 교육,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기초추진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의제인 청풍명월21에서부터 예산의 확충, 지원조례제정 등에 솔선하는 행정지원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종합토의 : 최시영 사무국장

- 광역의제추진기구인 청풍명월21과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의제21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례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직 공무원을 비롯한 충청북도 전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
-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지방의제21 추진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시군관계자 워크숍과 같은 행사를 봄가을 정기적으로 갖자
- 충북 농촌지역에서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도시지역의 학교 및 기업, 관공서 등)과의 폐비닐 수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 광역의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자

3. 평가 및 성과

- 시군 지방의제21간의 상호교류와 정보공유의 마당 제공.
- 워크숍을 통한 지방의제21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 작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협치) 정착의 필요성 각인.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발전 토론회

1. 사업개요

· 취 지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 환경교육과 관련, 충북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실태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함.

·일 시 : 2005년 11월 15일 14:00 ~ 17:40

·장 소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참가자 : 132명(환경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생 교사, 지방의제21 실무자 및 관계 공무원)

·추진방향

·환경교육 시행기관 및 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도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토론회 계획 및 방향 설정

·충청북도 지역의 사회 환경교육 실태 조사 연구·요약 : 부록 2

·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초·중·고교에 설문 조사를 통한 분석 연구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발전 토론회 개최

·사업비 : 3,500,000원+협력금(청주대학교 NURI 그린&크린 환경사업단)

2. 추진내용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11월 15일 13:00~14:00	참 석 등 록
14:00~14:20	개 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회 : 이 강 주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국민의례 ▪인 사 말 : 안 상 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부회장) ▪격 려 사 : 이 재 충 (충청북도행정부지사) ▪축 사 : 이 대 원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14:30~15:3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회 : 강 상 준 (충북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주 제 I : 충북지역 환경교육실태조사 연구 반 기 민 (충북생명의 숲 사무국장) ▪주 제 II : 충북지역 환경교육 발전방안 이 선 경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주 제 III : 충북지역 청정환경복원 - 산업과 교육 문 석 기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5:30~15:40	휴 식
15:40~16:40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토론자 - 토론 : 조 계 숙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토론 : 남 윤 희 (진천중학교 환경교과 교사) - 토론 : 염 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토론 : 박 정 순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40~17:00	자 유 토 론
17:00~	폐 회 식

□ 결과보고 구성

▷ 주제발제(요약)

- 충북생명의숲 반기민 사무국장 : “현재 사회환경교육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전문강사 중심에서 훈련받은 활동가로 지도력 변화, 재정의 피교육자 부담에서 공공재정의 활용으로 재정의 변화를, 개별 조직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 청주교육대학교 이선경 교수 : “충북지역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우리 주변의 쟁점과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 파트너십 운영, 환경단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 가능성 확보,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고찰, 충북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청주대학교 문석기 교수 : 교육인적자원부의 NURI 사업에 청정환경복원시스템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결정으로 그린&크린환경사업단의 운영 성과를 발표한뒤 “그린&크린환경사업단은 산·학협력의 대안으로 소재, 기술 등 다양한 실천기술을 확보한 산업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

▷ 종합토론

- 조계숙 충북도의원 : “환경관련 단체나 학계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충북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지표를 알 수 없다”며 “환경교육의 확산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진천중학교 남윤희 교사 :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경우 2004년 10월 기준 중학교는 122개교 중에 54.9%인 67개교, 고등학교는 72개교 중에 38.2%인 28개교가 생태와 환경을 선택,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도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6명으로 5%에 그치고 있다”
-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사무처장 :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환경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하다”며 “제도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은 물론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충북환경교육협의회 발족 등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박정순 사무국장 : “도내 환경교육의 현실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개념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충북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환경 활동가 및 강사그룹의 데이터 및 각 단체별 프로그램 공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현실화를 기대해 본다”

3. 평가 및 성과

- 환경교육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제시.
- 충북의 환경교육의 체계화, 조직화, 또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 활발한 교류.
- 충북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 됨.



공 모 사 업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1. 사업개요

· 취 지

충청북도의제21추진기구인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서는 지방의제21 활동 목표이기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한 '녹색 거버넌스 정착' '경제발전과 사회적 평등' 그리고 '환경보전의 통합적 접근' 등을 도민들의 삶속으로 확산 되도록하여 우리도를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공모지원코자 함.

○ 공모사업 분야

□ 단체 공모사업

- 주요 사업분야 : 청풍명월21 의제 관련 사업

①생태 ②교통/도시계획 ③대기/소음 ④물/폐기물 ⑤자원/에너지

⑥문화체육/청소년/의료복지 ⑦노동/여성/NGO ⑧농업/관광

⑨시·군 지방의제21 활성화 분야

- 모범 사업분야 : 위의 주요 사업분야 외에 지역내 제 그룹간의 파트너쉽이 구현되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업

① 심사과정

·사업계획서 공모기간 : 2005년 3월 16일 ~ 2005년 3월 31일

(총 11개 사업 접수)

·서류심사 : 2005년 4월 1일 ~ 4일

·심사위원 구성 : 2005년 3월 21일

·심사위원회 심사 : 2005년 4월 6일

- 안상진 부회장, 강상준 운영위원,
조계숙 운영위원, 채근석 환경과장



② 심사결과 - 5개 사업 선정

번호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비고
1	충북생명의 숲 이도영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청정살터녹색충주21실천협의회 최근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3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배은하	청정도시의 지향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시민실천	
4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 김상기	냉장고 크린화 운동 계획성 있는 식품소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요	
5	청주YMCA 김주형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③ 2005년도 청풍명월21 공모사업 추진성과 발표회

- 일 시 : 2005년 12월 9일 (목요일) 14:20 ~ 15:50
- 장 소 : 충청북도청 동관2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협의회 위원, 주관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 및 일반도민)
- 평가위원 : 4명(안상진 부회장, 류을렬 운영위원, 조계숙 운영위원, 채근석 환경과장)
- 추진내용
 - 공모사업 주관단체별 추진성과를 5~7분정도 발표
 - ※ 5개단체 5개사업
 - 녹색환경영상제 입상작 상영
 - 최종평가 결과 발표
 - 1위 : 대한주부클럽충북연합회
(회장 김상기)
'계획성 있는 식품 소비로 음식물
쓰레기 줄여요'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사업목적

- 학교의 옥외환경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연환경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의 자연환경을 알고 이해하여 자기내면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기간 - 2005년 5월 - 6월

·사업대상 - 미원초등학교 전학년 319명

·사업 주요내용

- 학교의 옥외환경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옥외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에 적용하였다. (수목 및 야생화 등 조사)
- 그동안 생명의숲에서 지원한 학교숲시범학교 사업으로 학교내 수목 등이 교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음.
- 하루에 2개 학년씩 교육받은 강사 8명이 학년수준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관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업주요참가자 - 미원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사업추진성과

-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의 옥외환경을 이해하고 학교사랑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 체험환경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 학교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기회를 통하여 학교의 환경을 잘 가꾸어갈 수 있는 정보제공과 기회가 부여되었다.
-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이 고취되었다.
- 교사들은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요사업추진일정표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추진내용
1. 교육할 학교와 협의	5월	학교숲 담당교사 면담 교육 일정협의
2. 학교자연환경조사	5월 18일 5월 30일	학교 야외 환경 조사 (수목 야생화 등)
3. 체험환경교육 실시	5월 31일 6월 02일 6월 03일	1-2학년 체험환경교육실시 3-4학년 체험환경교육실시 5-6학년 체험환경교육실시 (미원초등학교)
4. 평가회	6월 03일	교육 후에 평가회 진행

•성과 및 평가

-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에서 매우 만족해함.
- 학교의 수목과 야생화 등의 자료가 축적되는 성과를 얻음.
- 지속적으로 학교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학교 내에서의 체험환경교육에 활성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됨.
- 학교 교사들에게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응용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숲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여러 학교에 체험환경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부록-1>

미원초등학교 학교 숲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 목 적

학교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러한 학교에서 특별히 옥외공간을 활용하여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들은 그다지 많지 못한 실정이다.

미원초등학교는 2003년부터 학교숲을 조성하여 옥외환경을 바꾸어 오고 있다. 이러한 옥외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이번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은 학교의 숲을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육적인 활용이 가능한가와 환경에 대한 친환경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 교육일정

- 2005년 5월 31일(화) 오전 1, 2학년 반별로 강사 2명씩 (강사 8명)
- 2005년 6월 02일(목) 오후 3, 4학년 반별로 강사 2명씩 (강사 8명)
- 2005년 6월 03일(금) 오전 5, 6학년 반별로 강사 2명씩 (강사 8명)

■ 미원초등학교의 수목 및 야생화 목록

스트로브잣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목련 느티나무 아까시나무 영산홍 산철쭉 맥문동 옥잠화 둥근향나무 목수국 조팝나무 화살나무 라일락 목백일홍 회화나무 산벚나무 이팝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매죽나무 고로쇠나무 모감주나무 복자기 백목련 모과나무 마가목 백철쭉 중국단풍 잣나무 전나무 둥근소나무 회양목 말채나무 칠엽수 홍매화 명자나무 좀작살나무 병꽃나무 조팝나무 장미 주목 해당화 낙상홍

■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들 중에서 2-3가지 정도 여유 있게 진행한다.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면 강요하는 식의 강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능하면 학생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여 장차 학교의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공통적으로 나무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간을 적당히 배치하여 실시)

·1, 2학년용

주 제	지 도 내 용	시간	준 비 물
내 친구 나무 (내나무갓기)	내친구나무정하기 친구나무 이름 붙이고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쓰기	50분	각자 자기나무 정하기/네임펜/ 코팅편지지
우리 학교 나무 살펴보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이름 말하기 나무, 식물관찰 등	40분	강사 직접 설명
내가 살고 싶은 숲 속 그리기	내가 살고 싶은 숲 속 그리기. 그림그린 후 전시 및 설명	50분	학습지/크레 파 스

·3, 4학년용

주 제	지 도 내 용	시간	준 비 물
나의 나무그리기	내가 정한 나무 보고 특징 살려 그려보기	40분	학습지
나의 나무와 대 화 후 편지쓰기	나의 나무 정하고 대화하기 및 편지쓰기	40분	학습지
나무의 얼굴은?	3가지 정도의 종류를 달리하여 나무를 꺾질을 그려본다. 그림을 그린 후 전시회를 한다.	30분	종이/연필(크레 파스)/집 게/ 전 시할 끈

·5, 6학년용

주 제	지 도 내 용	시간	준 비 물
학교 나무 지도 그리기	내친구나무정하기 친구나무 이름 붙이고 친구에게 소개하는 글 쓰기	50분	교내 전경도/필 기구/식물이름/ 명찰
맨발로 학교 걸 어보기	학교의 운동장을 맨발로 걸으면서 느낌을 함께 이야기 한다	20분	
나무의 얼굴은?	3가지 정도의 종류를 달리하여 나무를 꺾질을 그려본다. 그림을 그린 후 전시회를 한다.	30분	종이/연필(크레 파스)/집 게/ 전 시할 끈

<준비물>

- 코팅지 편지쓰기용 디자인 색지 나무목걸이 네임펜 바닥에 깔 매트
- 얼굴그리기용 A4용지 나무표면 만져보기 할 호일(긴 것으로 2개 정도)
- 학교숲 그리기용 학습지(도화지 A3 정도) 전시할 끈 집계

<학교(개인)준비물>

- 가위 크레파스 연필

<미원초 학급현황>

학 년		1 (2개 학급)	2 (2개 학급)	3 (2개 학급)	4 (2개 학급)	5 (2개 학급)	6 (2개 학급)	계
학 생 수	남	35	29	32	23	23	25	167
	여	27	30	19	17	26	33	152
	계	62	59	51	40	49	58	319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 :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직접 탐사하고 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유도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의식을 함양코저 함.

·사업기간 : 2005년 4월 1일 ~ 11월 30일

·사업대상 : 충주시내 희망 초등학생

·사업주요내용

숲탐사 하천탐사, 우리꽃 알아보기, 기초환경시설견학, 천연염색
자연물을 이용한 석고뜨기, 나무공예, 별자리 관찰

·사업주요참가자 : 충주용산초등학교 5학년 희망어린이 40명

·사업추진성과

- 지역사회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었다.
- 자연이 주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보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향상되었다.
- 의제와 학교가 연계한 환경체험활동으로 지방의제21에 대한 홍보할 수 기회가 되었다.

·주요사업 추진일정표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추진내용
1. 기초조사 및 회의	4월 5일~ 11일	·대상인원 선발 ·대상지역 답사 ·추진일정 협의
2. 우리 꽃 알아보기	4월 23일	·우리 꽃 식물원 방문 ·우리 꽃 식재 (재활용품 이용)
3. 숲 탐사	5월 14일	·월악산 자연학습원 방문 ·숲의 천이과정 살펴보기
4. 충주천 생태탐사	6월 11일	·하천유형 관찰 ·수서곤충 및 어류 채집 ·채집한 생물의 관찰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추진내용
5.환경기초시설견학	7월 9일	·충주시 환경기초시설견학 (하수처리장, 광역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체험
6. 전통체험	10월 15일	·천연염색 ·자연을 이용한 작품만들기
7. 별자리 관찰	11월 12일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별자리 관찰 ·별자리에 관한 슬라이드감상
8. 평가회의 및 자료집 발간	11월 21일~	·자료정리 ·활동자료집 제작 ·평가회의 (담당교사, 협의회사무국)

·자체 및 평가

- 학교와 학원등 실내교육위주로 생활하던 어린이들에게 자연속에서 직접 주변의 생물과 우리 꽃등을 살펴보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 마련.
- 기초환경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가 만든 쓰레기의 처리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분리수거, 물 아껴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운동의 유도
- 좀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 제공의 필요하다.
- 용산초등학교 5학년 4개반 중 1개반에 10명씩 희망자를 선정 활동을 해본 결과,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 협의회에서 선정한 활동뿐만 아니라 대상어린이나 교사에게 희망 활동 사항을 신청 받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 평 가 회 의 ❖

- 일 시 : 2005년 11월 25(금)
- 장 소 : 충주시 용산초등학교 5학년 1반
- 참석인원 : 45명
(교감선생님1명, 5학년 담임선생님 4명,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40명)
- 내 용
 -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점 발표
 -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에 아름다운 곳이 많다.(고령하)
 -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겠다.(이은지)
 - 쓰레기분리수거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쓰레기 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겠다(강상훈)
 - 수돗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알았고 고생하시는 아저씨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제부터는 물을 아껴 써야겠다.(조은비)
 - 자연은 우리가 아껴주어야 자연도 우리를 아껴준다.(김아지)
 - 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교사 전순영)
 - 학교에서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한다.
환경기초시설같은곳은 보통으로 잘 가지 않는 곳이여서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받게 했다. 아이들도 쓰레기문제나 물에 대해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현장교육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사 우영근)
 - 천연염색이나 별자리관찰이 특히 아이들에게 즐거웠던 것 같다.
이론적인것보다 직접 몸을 써서 하는 체험활동이 아이들에게는 오래 기억에 남을테고 자연
에 대한 소중함도 더 느낄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 권성희)

청정도시의 지향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시민실천

·사업목적 : 기후보호 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천방안 모색 등 청정도시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제고 및 맑은 도시를 위한 시민실천의제 만들기 등 지역차원의 시 정책 및 시민실천방안 모색, 대기질의개선 및 쾌적성 우수도시 구현

·사업기간 : 2005. 4. ~ 2005. 11.

·사업대상 : 제천시 시민

·사업주요참가자 : 제천시,시민환경지도자 대학 수료생 및 수강생,
제천시민,도내의제21관계자

·주요사업내용 - 청정도시구현을 위한 지역관계자 회의
- 시민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 지역정서와 흐름의 공유를 위한 캠페인
- 기후변화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예술행사
- 지역실천을 위한 방안 모색 워크숍
(주요사업추진내용 세부-참조)

·사업추진 성과 :

1. 제천시와 에너지대안센터, 청정제천21이 함께 기후보호도시 만들기 추진
2. 기후변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교육 실시로 제천시민 기후보호운동 동참 유도
3. 지구의 날 기후보호캠페인 및 청정도시 만들기 거리캠페인에 직접 시민모임의 참여 유도
4. 제천시태양광발전사업 유도- 제천시민주차타워,하수종말처리장,그린빌리지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견학 등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관심유도
6. 기후변화대응 워크숍을 통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사고 유도

·주요사업 추진일정표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준비	2월- 7월	-참가단체 조직 및 사업설명회 등 준비회의 -추진과정 참가단체와의 교섭회의 진행회의 등
지구의 날 거리캠페인	4월	지구의날 기념 거리 캠페인 일시:2005. 4. 22 장소:시내일원 -지구온난화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보호 협약내용 -자료를 이용한 시민홍보 거리캠페인,정화활동 및 꽃밭만들기 행사
청정도시만들기 시민교육	5월	청정도시 만들기 시민교육 일시:2005. 5. 4. 장소:시민회관 내용: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과 실천운동에 관한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역의 역할 고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연구소견학	5월	한국에너지연구원 견학 일시:2005. 5. 25. 장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견학 내용: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사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우리나라 기술 현황확인
청정도시만들기 거리캠페인	7월	청정도시만들기 거리캠페인 일시:2005. 7. 16 장소:시민회관광장에서 시내일원 내용:기후변화 협약 관련 홍보자료 배부, 실천내용 홍보
청정도시만들기 시민실천을 위한 워크숍	7월	청정도시만들기 시민실천을 위한 워크숍 및 어울마당 일시:2005. 7. 16 장소:동명초등학교 내용: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활동 관련 내용의 강의 및 지킴이 어울마당
생명의숲속예술제	10월	2005.생명의숲 숲속예술제 일시:2005. 10. 2. - 3. 장소:박달재자연휴양림 내용:숲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녹지보호관련
기후변화대응 충북지역워크숍	11월	온실가스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충북지역 워크숍 일시:2005. 11. 24. 장소:제천시청대회의실 내용: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지역적 실천방안 모색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사업총괄 보고서 제출

·성과 및 평가

1. 당초 계획 수정에 관하여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아름다운 시민실천이라는 타이틀로 매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를 준비하였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의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조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기에 시민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아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실천의 단계에서 약간 변경하게 되었다.

2. 거리캠페인 및 시민교육 : 우선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제공과 지역 및 시민실천에 관한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이해를 돕고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자료의 배부 및 거리캠페인을 통한 가시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수료생들이 행사 주체가 되어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한다.

3. 숲속예술제 : 캠페인이나 교육을 떠나 숲과 예술을 접목하였다. 생명의숲에서 함께 참여한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숲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숲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4. 기후변화 대응 지역실천을 위한 충북지역 워크숍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타이틀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의 및 교토의정서 관련 내용,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서의 에너지관리, 지방의제21을 통한 지역실천방안 등이 모색 논의 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거시적인 실천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의 정보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의 행정적 정책마련도 공히 다루어짐으로서 지역의 정서를 다듬어가야 한다는 자체 평가가 있다.

- 기후변화라고 하는 낯설은 용어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다소 거리감을 주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들을 전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점차 이해와 참여를 가져오게 되었다.

❖ 주요사업 추진내용 세부 ❖

1. 회의 및 청정도시만들기 준비활동

■기후보호도시 만들기 추진회의

·일시 : 2005. 2.1 참석 : 제천시, 청정제천21, 에너지대안센터

■청정도시만들기를 행동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투어

·일시 : 2005. 4. 16-17 참가 : 제천시, 청정제천21, 중앙환경연합

■태양광시민발전소건립준비활동

·일시 : 2005.4-6.

·대상 : 제천시, 시민주차타워, 중앙성결교회, 환경관리사업소

■사업논의그룹결성-준비회의<<계획수립>>

·일시 : 2005. 3. 7. 오후:60:00 장소 : 청정제천21사무국

■지구의날 거리캠페인 및 사업집행 세부논의

·일시 : 2005. 4. 20. 오후 60:00 장소 : 청정제천21사무국

■청정도시만들기거리캠페인 및 환경지킴이 어울마당논의

·일시 : 2005. 7. 2. 오후 6:00 장소 : 청정제천21사무국

■캠페인 및 어울마당 평가회의

·일시 : 2005. 7. 28 . 오전:11:00-12:00 장소 : 청정제천21사무국

■기후변화대응지역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준비회의

·일시 : 2005. 11.2. 장소 : 제천시청

2. 행사 및 워크샵 추진

□1차 행사 지구의날 기념 거리캠페인

▪일 시 : 2005. 4. 22. 오전 10:00-12:00

▪참 석 : 60여명

▪주 관 : 맑은세상, 푸른자연지킴이, 자연사랑나눔미

▪지 역 : 피재골약수터 부근, 청풍만남의 광장 및 시내일원 등 전역 활동

- 내용 : 각 시민모임별 청정도시만들기시민실천운동 홍보//유인물배부
정화활동 및 꽃씨 심기 등 녹지화 운동

□2차 청정도시만들기 시민실천을 위한 교육

- 일 시 : 2005. 5. 4. 오전 10:00-12:00
- 장 소 : 시민회관
- 참 석 : 50여명
- 대 상 :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수강생 및 수료생
- 내 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관련 정보 제공 - 자료집배부

□3차 청정도시만들기 선진시설 견학

- 일 시 : 2005. 5. 25.
- 장 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참 석 : 제천시민 40여명
- 내 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사용의 전환
에너지효율에 관한 시설견학.
대전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등의 방문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이해 증진

□4차 청정도시만들기 거리캠페인

- 일 시 : 2005. 7. 16. 오전 10:00-12:00
- 행 사 :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총동문회 주관 진행
- 참 석 :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관계자 100여명
- 내 용 : 청정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홍보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관련
홍보자료 배부 등 거리 캠페인

□5차 청정도시만들기시민실천을 위한 워크샵 및 어울마당

- 일 시 : 2005. 7. 16. 오후 2:00 - 7:00
- 장 소 : 동명초등학교 체육관
- 참 석 :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관계자 100여명
- 행 사 : 시민환경지도자 대학 총동문회 주관 진행
- 내 용 : 기후변화대응과 지역 활동

□6차 숲속예술제

- 일 시 : 2005.10. 2- 3.
- 장소:박달재자연휴양림
- 참 석 : 생명의숲 회원, 제천시민 등 100여명
- 행 사 :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및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 내 용 : 청정도시의 지향과 숲의 중요성 공유를 위한 행사

□7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실천방안 모색 충북지역 워크숍

- 일 시 : 2005. 11. 24.
- 장소: 제천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충북지역 의제21 주요관계자 및 제천시민 100여명
- 내 용 : 기후변화완화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관련
세부 정보 제공,지역적 실천방안을 위한 전반적인 국내외
현황 및 실천사례 공유, 지방의제21을 통한 지역실천방안 모색



냉장고 크린화 운동

“계획성 있는 식품소비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요”

■사업목적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미국 : 10%),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282g(862원)으로 국민 전체 1일 404억원, 1인당 연간 314,700원, 1가구당(3.6인 기준) 연간 1,133,000원의 비용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탕반위주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음식이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국물(국, 찌개, 김치국물, 소스류)의 경우 별도의 처리가 어려워 하수도에 버려지게 되고 이는 생활하수의 오염과도 직결된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80%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질소와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 발생과 해충번식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53%가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장만한 음식이 냉장고에 보관되다가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냉장고의 식품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계획하였으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함으로써 음식물 낭비를 막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 : 2005년 5월 1일~9월 30일

■사업추진내용

1) 냉장고 사용 실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

- 일 시 : 2005년 5월 16일~5월 30일
- 대 상 : 청주시 거주 주부 300명 (회수 286명)
- 방 법 : 조사요원 10명 1:1 면접조사
- 내 용 : -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
 - 식료품 사전 계획 구매의 생활화 비율
 - 식품의 냉장고 보관 방법 및 관리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요인
 - 크린 냉장고 만들기 실천도

◦목 적 :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시민의식을 점검하여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생활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마련

2) 교육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요일)

◦대 상 : 청주시민 80명

◦내 용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강순구 청주시청 청소과장)

- 실태조사 결과 및 지침서 작성요령

(김진혜 충북지회 실장)

▶ 교육생에게 크린 냉장고 지침서 배부

◦목 적 : 나의 식품 소비 및 냉장고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실천일지 배부

◦일 시 : 연중

◦대 상 : 청주시민 및 교육생

◦내 용 :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크린 냉장고 관리지침 배부

◦방 법 : 지부(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보은, 증평)와 관련기관, 여성단체, 환경단체에 지침서 배부(500부)

4) 평가회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요일)

◦대 상 : 임원 30명

◦내 용 :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 주요참가자 : 청주거주자 365명

(실태조사285명, 교육80명)

■사업추진 효과

◦본 사업은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장만한 식품들이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되다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와 냉장고의 식품보관 및 관리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간담회 및 평가회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

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 교육을 통하여 냉장고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감소시키고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침서를 제작하고 홍보함으로써 가정에서는 물론 생산자, 유통업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의식을 생활화 하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본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 2005년 추진사업실적 -

단위사업명	추진일정	추진실적
1. 냉장고 사용실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조사	5월16일-5월30일	·대상: 청주시 거주 주부 300명(회수: 285명) ·조사요원: 조사요원 10명 ·내용: -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조사 - 식료품 사전 계획 구매의 생활화 비율 - 식품의 냉장고 보관 방법 및 관리 - 음식물 쓰레기 발생요인 - 그린 냉장고 만들기 실천도 ·목적: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시민의식을 점검하여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생활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마련.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6월 29일	·대상: 청주시민 80명 ·장소: 충북지회 교육실 ·내용: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 김충제 (청주시 청소과장) 실태조사 결과 및 지침서 작성 - 김진혜(충북지회 실장) ·목적: 나의 식품 소비 및 냉장고 사용실태를 점검해보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함.
3. 실천일지 배부	연중	·제작부수: 500부 ·대상: 교육생 및 청주시민 - 교육생 및 청주시민: 400부, 기관: 100부 ·내용: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그린냉장고 관리지침 배부
4. 간담회 및 평가회	5월4일 6월2일 7월8일 9월 7일	·간담회 - 일시: 5월 11일 / 6월2일 / 7월 8일 - 대상: 15명 / 30명 / 30명 - 내용: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개선방안 마련 조사원 조사내용 점검 ·평가회 - 일시: 9월 7일 - 장소: 충북지회 교육실 - 대상: 30명 - 내용: 지침서 배부 및 추진사업 개선방안 마련

○성과 및 평가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 청주시청 환경과에서 냉장고 식품 출입 관리 부착용 체크 카드를 지원하여 냉장고속 식품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본사업의 성과를 한층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사업목적

- ① '환경사랑과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날 세대와 가장 밀접한 매체인 영상미디어에 담아 그 효과와 파급력을 극대화하여 환경보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느끼고 실천하고자 한다.
- ② 영상교육을 진행하여, 환경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영상에 담아 홈페이지, 영상제, 퍼블릭엑세스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저널리즘'을 실천하고 건전한 영상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한다.

■사업기간

2005년 4월 11일~11월 20일

■사업대상

- ① 사업대상 계층
 - 도내 중·고등학교 방송반 및 영상동아리 학생
 - 도내 아마추어 영상클럽
 - 그 밖에 환경 및 영상에 관심이 있는 시민
- ② 사업대상 지역
 - 충청북도 전 지역

■사업주요내용

1.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조사

① 취 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및 문제의식조사

시민들이 평소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실천사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국내환경정책에 관한 견해 등을 조사하여 환경사랑의 실천방법 및 개선점을 마련한다.

② 대 상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 남녀 100명

③ 방법 및 내용

- 환경보호실천정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환경수호방법 등
- 일대일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④ 설문결과

- 57페이지 참조

2. 영상미디어활동 현황 조사

① 취 지

영상미디어에 대한 인식 및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영상미디어 세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시민들이 영상미디어를 보는 시각과 영상참여활동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영상교육과 영상제 개최의 방향을 수립한다.

② 대 상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인 남녀 100명

③ 방법 및 내용

- 영상미디어 활동현황, 관심도, 앞으로의 전망 등
- 일대일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④ 설문결과

- 57 페이지 참조

3. 영상아카데미

① 취 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영상교육을 통해, 일방적인 수용자로만 머물러 있던 시청자가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스스로 알리고 싶은 뉴스, 생활에 밀착한 프로그램 등을 기동력 있게 취재·제작하여 '시민 저널리즘'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② 방 법

- 교육담당 : 주성대학교 디지털방송과 권영수 교수, 최한규 교수
HCN청주케이블방송 이재근 기자
- 장 소 : 청주YMCA, 민들레 IT플라자, 청주 시내
- 기 간 : 2005년 7월 27일(수) ~ 10월 5일(수)
- 시 간 : 오전 10:30 ~ 13:00
- 참가인원 : 성인남녀 20명

③ 교육내용

주차	일 정	교육과목	세부 내용	강사명
1	7/27(수)	영상기획	기획·연출, 대본/콘티 작성	권영수, 이재근
2	8/03(수)	촬영기초	촬영 콘티 작성, 촬영 구도, 앵글	권영수
3	8/10(수)	촬영실무	촬영기술 습득	권영수
4	8/17(수)	작품촬영	콘티에 따른 영상촬영	권영수
5	8/24(수)	작품촬영	콘티에 따른 영상촬영	권영수
6	8/31(수)	영상편집 기초	영상편집 기초	최한규
7	9/07(수)	영상편집	영상 편집 효과, 자막 편집	최한규
8	9/14(수)	영상제작	촬영 영상물 가편집	최한규
9	9/21(수)	영상제작	촬영 영상물 편집	최한규
10	9/28(수)	영상제작	VJ 영상물 완성	최한규
11	10/05(수)	시사회	조별 완성작품 시사회	최한규

④ 활동사진



기획 및 촬영기초



촬영 실습



야외촬영 실습



편집실습



편집실습



조별 완성작 시사회

4. 녹색환경교육

① 취지

영상아카데미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실천사항을 공유한다.

② 내용

- 환경보호 영상물 상영
-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갈 사항
- 가정에서 함께 실천하는 환경사랑운동



환경관련영상물관람1



환경관련영상물관람2

5.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① 행사안내

- 목 적

영상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의 일방적인 수용자 입장이 아닌, 이제는 일반인들도 직접적인 영상제작활동을 통해 영상매체의 공급자로서의 활동이 늘고 있다.

이에 환경사랑의 메시지를 영상물에 담아 함께 공유하고, 보고 느끼면서 환경사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환경영상제를 개최하였다.

- 주최 : 충북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 주관 : 청주YMCA
- 후원 : 주성대학교 방송연기영상과, 청주HCN방송

② 행사일정

- 영상제 및 시상식 : 2005년 10월 29일(토) 오후 3시
- 출품신청 및 작품제출 : 2005년 10월 19일(수) 마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 장 소 : 청주YMCA 1층 강당

③ 출품규정

- 응모자격 : 청소년 및 일반인
- 작품구분 : 자유장르 (VJ, 다큐, 뮤직비디오 등)
- 소 재 : 환경사랑과 보호에 관한 메시지 (자연환경 및 생활주변환경 등)
- 출품작은 DV 6mm tape으로 제출
- 개인 또는 팀별 제출
- 2005년 6월 이후 제작된 5분 내외 영상물
- 다른 영상제 수상작 제외

④ 심사기준

- 작품성(40), 독창성(20), 영상미(20), 작품내용(20)

기준	내 용	배점
작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의도의 명확성(오프닝/프롤로그, 전개과정, 에필로그/클로징) ◦영상, 오디오(음악/음향, Na/INT/RPT/현장음) ◦자막 편집효과의 조화 및 적절성 	40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및 내용에서 아이디어 및 창작성 ◦참신성 및 기발함 	20
영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의 구도(구도 및 구성에 의해 메시지를 표현하는 영상미) ◦영상의 세련미(심도/노출/초점의 적절성, LS/FS/MS/TS의 적절한 배합구성, 카메라 워킹/촬영 테크닉, 입체감/원근감, 이미지 라인 등) 	20
작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시지/의미의 전달력 (영상/오디오/자막 구성에 의한 메시지의 이해도, 알맹이) ◦내용의 다양성/풍부함 및 완성도 (‘녹색환경 수호’ 주제와 일치성, 주제 및 내용 전개의 일관성/체계도) 	20

⑤ 심사위원

- 강영일 (청주YMCA 사무총장)
- 이도영 (충북생명의숲 상임대표)
- 이강주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 김광일 (HCN청주케이블TV방송 보도제작팀 부장)
- 권영수, 최한규, 강안구 (주성대학교 방송연기영상과 교수)

⑥ 행사진행순서

- 개회인사
- 환영사
- 격려사
- 의제21 소개
- 작품상영
- 축하공연
- 심사평
- 심사 및 시상
- 폐회사

⑦ 시상내역

상 장	수상자	작 품 명
최우수상(충청북도지사상)	김영도, 김기현	농부에게 듣는 환경사랑이야기
우수상(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장상)	임선영, 이민경	숲속을 걸어요
장려상(청주YMCA 사무총장상)	손경희, 김정숙 권양순	관심 속에 활기찬 청주
특별상(HCN청주케이블TV 사장상)	김하나, 김지현 정인숙, 조아람	환경. 그 실태에 관한 고찰

⑧ 행사사진



■사업주요참가자

- ① 영상아카데미, 녹색환경교육 참가자 : 일반 주부 및 직장여성
- ② 영상제 참가자 : 일반인, 고등학교 영상동아리 학생, 대학교 영상동아리 학생
- ③ 교육담당 : 주성대학교 방송연기영상과 교수진
- ④ 언론홍보 : HCN청주케이블TV방송 보도제작팀

■사업추진성과

- ① 영상아카데미 및 녹색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 환경사랑실천모습 등을 직접 만든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를 공유하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
- ② 영상아카데미 수료자들이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모습을 영상으로 알리고자 영상클럽을 조직하여, HCN명예기자단 활동 등 시민저널리즘 실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추진일정표

사업추진기간 : 2005년 4월 ~ 11월								
주요사업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세부추진계획수립	●							
환경의식 설문조사		●	●					
영상미디어활동 설문조사		●	●					
영상아카데미 및 녹색환경교육				●	●	●		
영상클럽 조직 및 활동						●	●	●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홍보					●	●	●	
녹색환경수호 영상제 개최							●	

■자체평가

- ① 환경의식조사, 영상미디어 활동 조사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요구되어 진다.
- ② 일반인 및 주부들에게 영상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소 생소하고 어렵게 보이던 영상촬영 및 편집을 직접 실습하고 활용하며,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영상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③ 영상제 홍보에 도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아마추어 영상동아리를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어 진다.

④ 영상제 개최시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영상활동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관련 전체 통계>

■설문참여인원: 100명

■응답자의 성별

① 남자(39% 39명) ② 여자(61% 61명)

■응답자의 연령대

① 10대(10% 10명) ② 20대(26% 26명) ③ 30대(34% 34명)
④ 40대(21% 21명) ⑤ 50대 이상(9% 9명)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① 학생(17% 17명) ② 사무직(14% 14명) ③ 기술직(10% 10명)
④ 전문직(7% 7명) ⑤ 개인사업(12% 12명) ⑥ 서비스직(7% 7명)
⑦ 연구직(2% 2명) ⑧ 주부(26% 26명) ⑨ 농수축산업(2% 2명)
⑩ 기타(3% 3명)

■응답자의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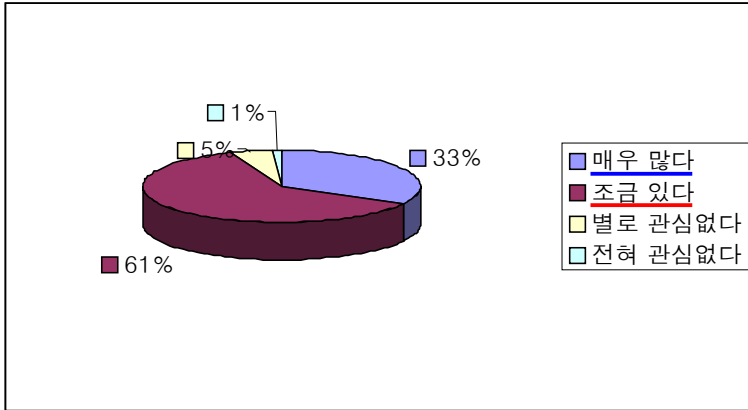
① 월 100만원 이하(5% 5명)
② 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20% 20명)
③ 월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45% 45명)
④ 월 3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17% 17명)
⑤ 월 400만원 이상(13% 13명)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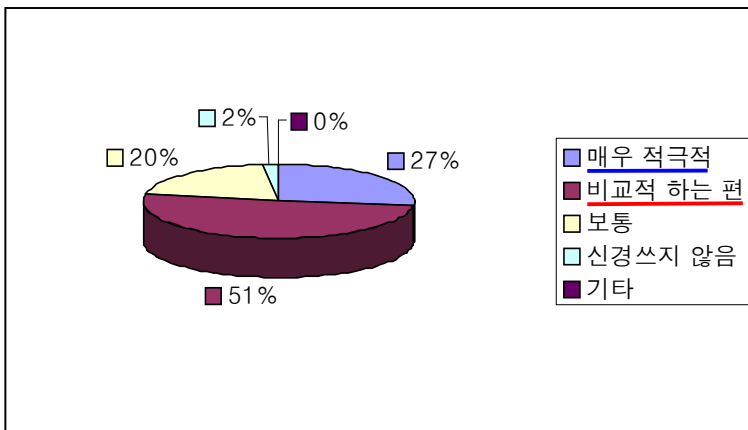
① 흥덕구(69% 69명)
② 상당구(31% 31명)

1. 환경의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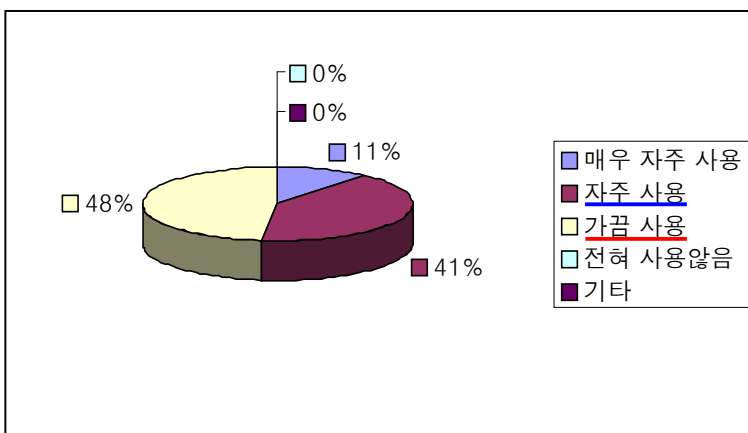
1.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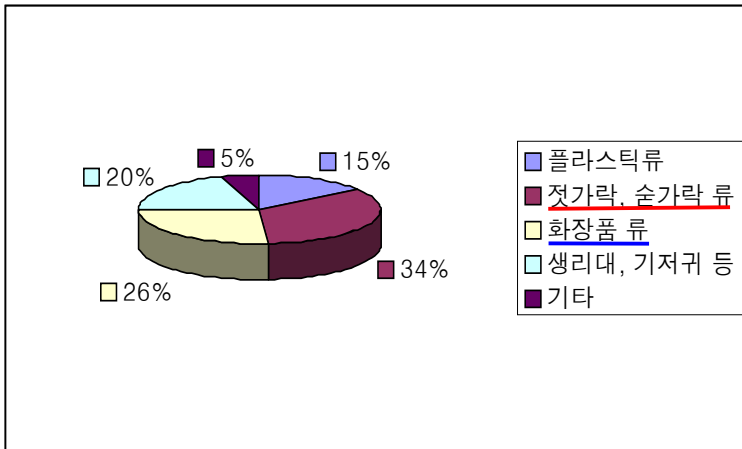
2. 평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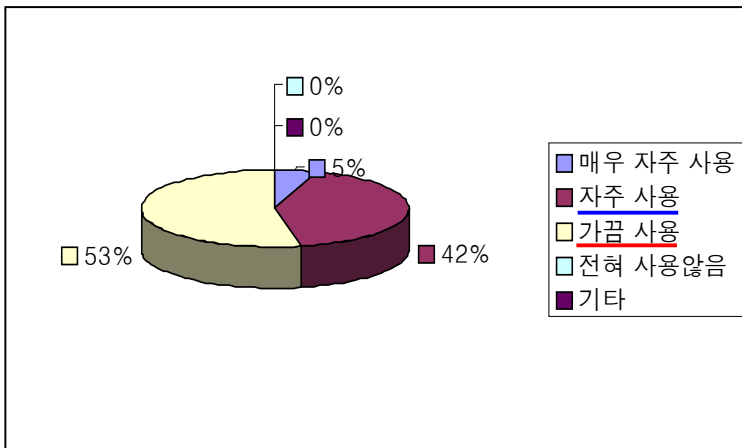
3. 평상시 일회용품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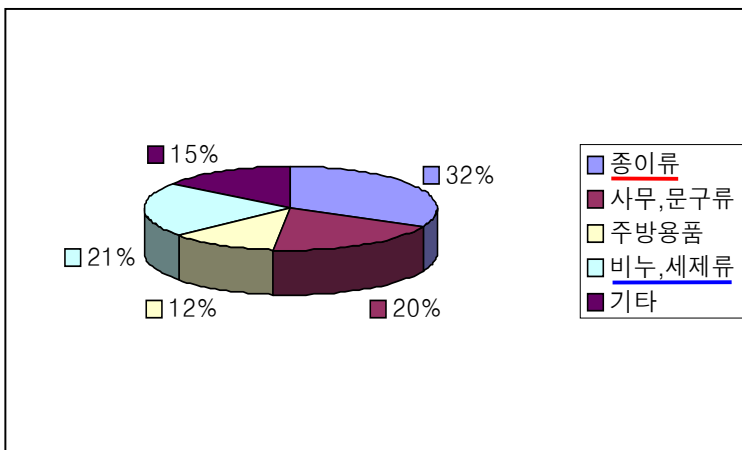
4. 사용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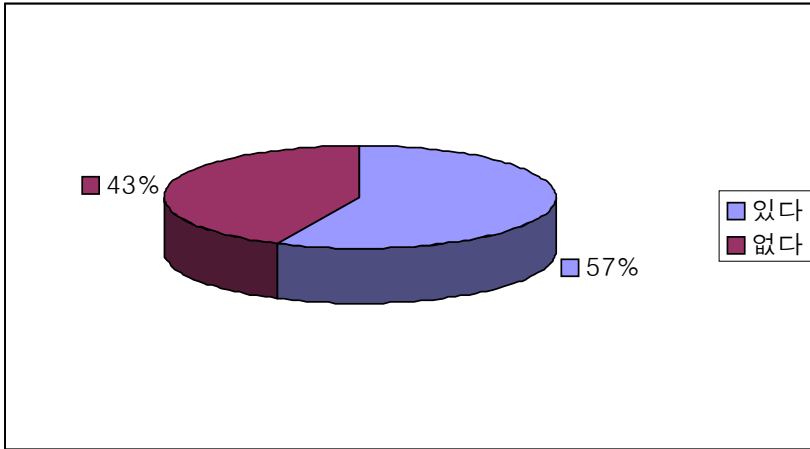
5. 평상시 재활용품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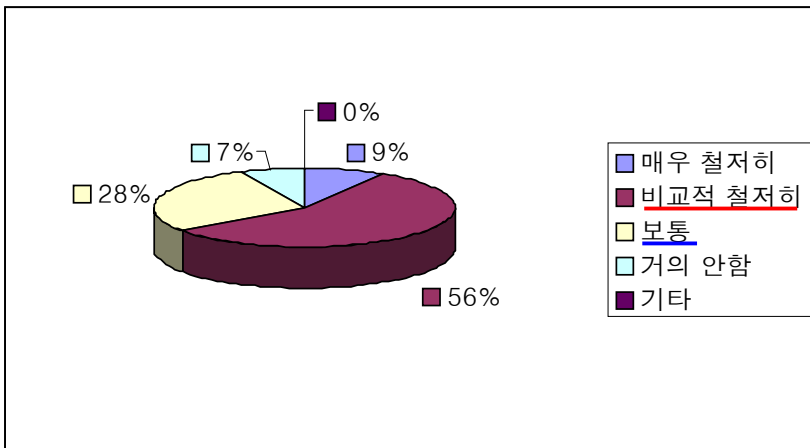
6. 사용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재활용품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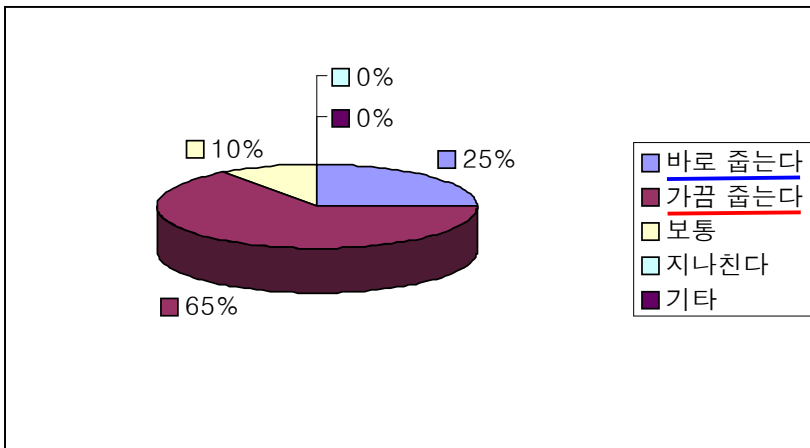
7. 귀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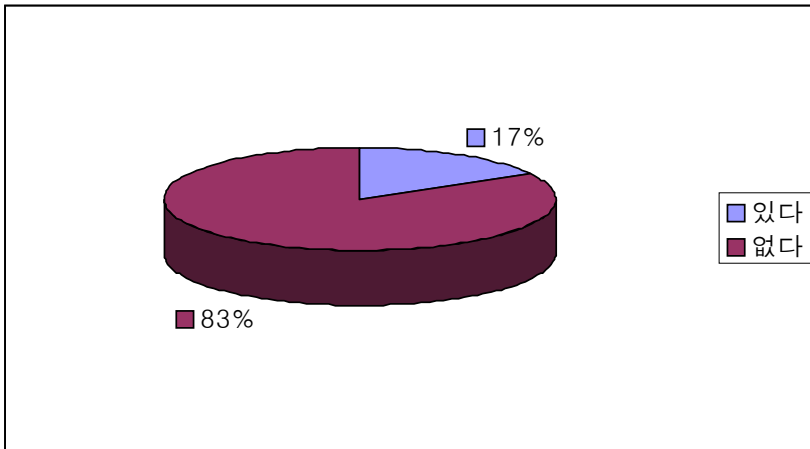
8.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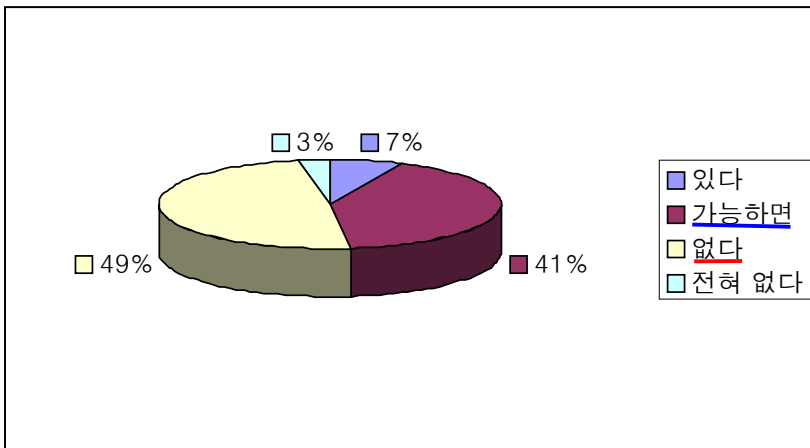
9.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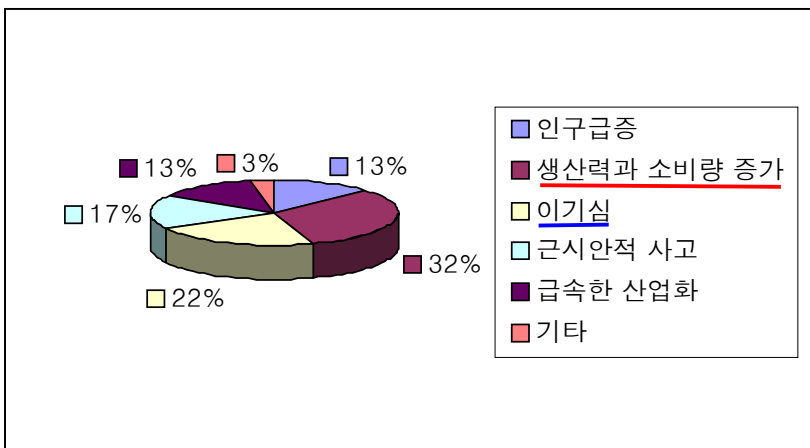
10.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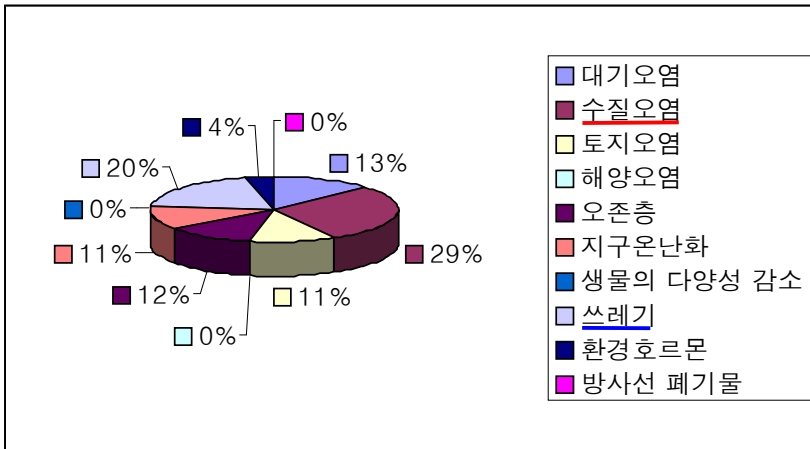
11.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진행되는 환경 캠페인, 환경운동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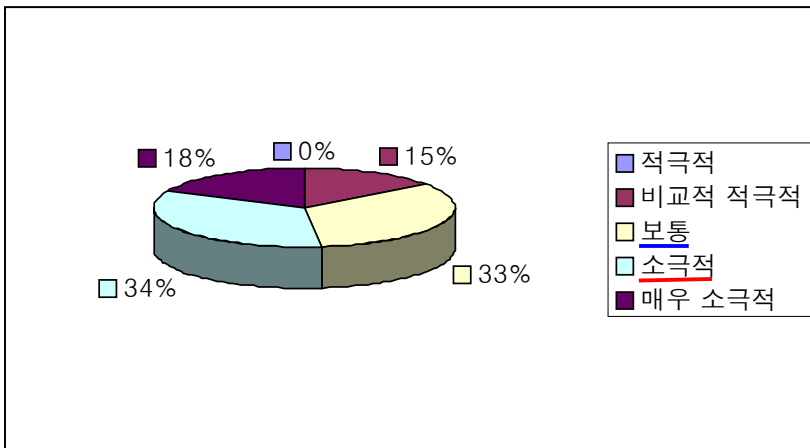
12. 환경오염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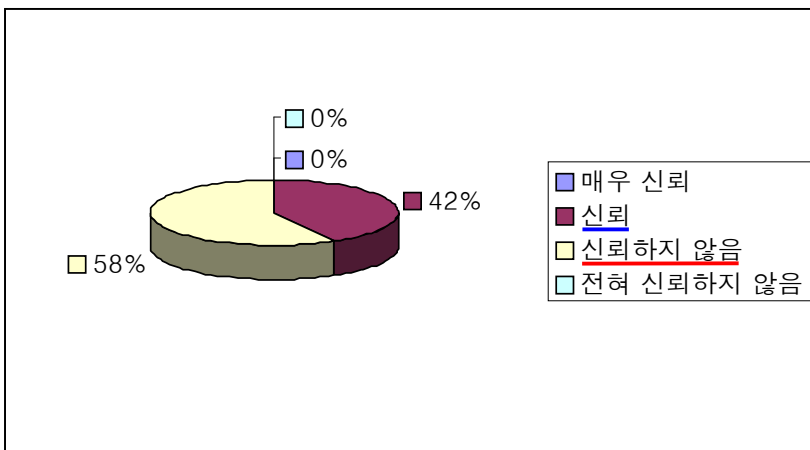
13.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4. 현 정부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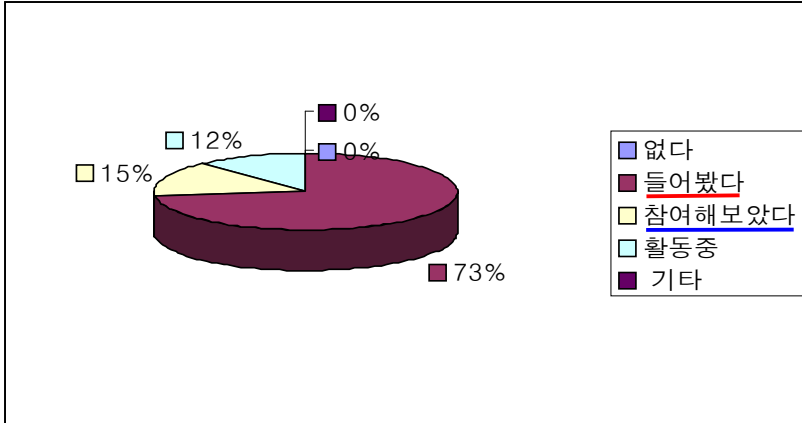
15.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환경관련 지표들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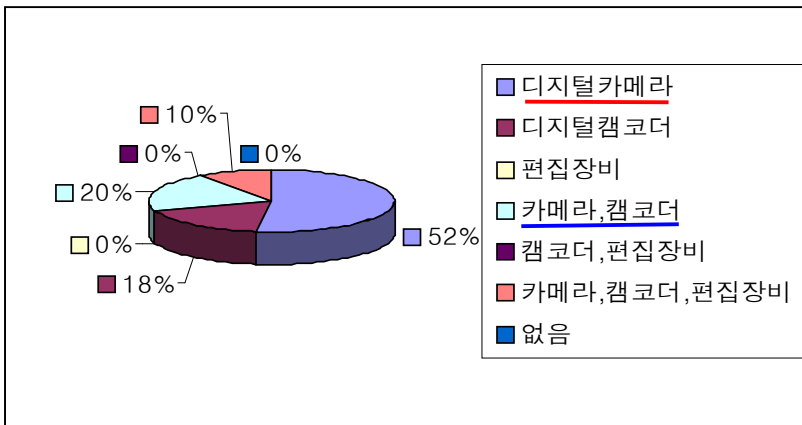
2. 영상미디어활동 조사결과

□ 영상미디어 활동에 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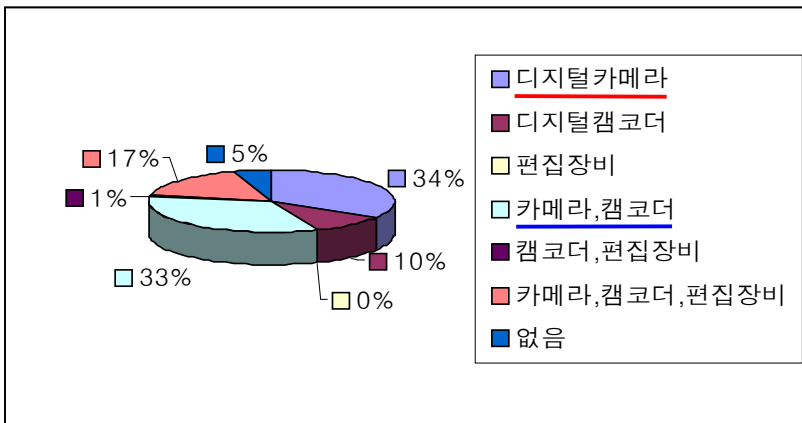
1. 영상미디어에 대해 들어 보거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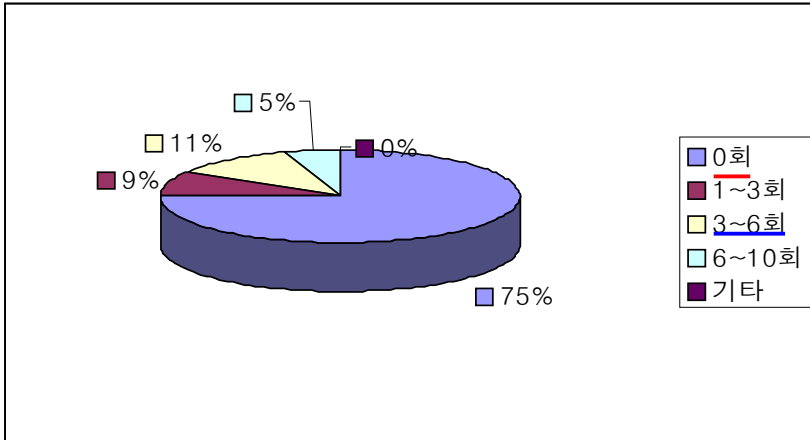
2. 영상미디어에 관한 보유 장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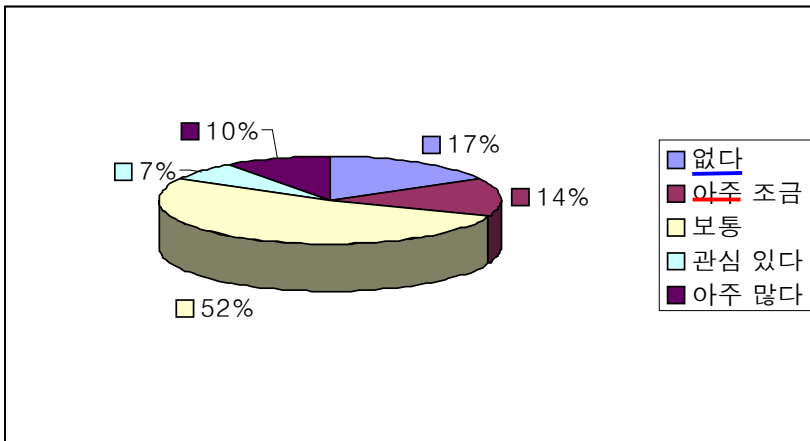
3. 직접 다룰 줄 아는 영상 장비는?



4. 직접 간단한 영상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횟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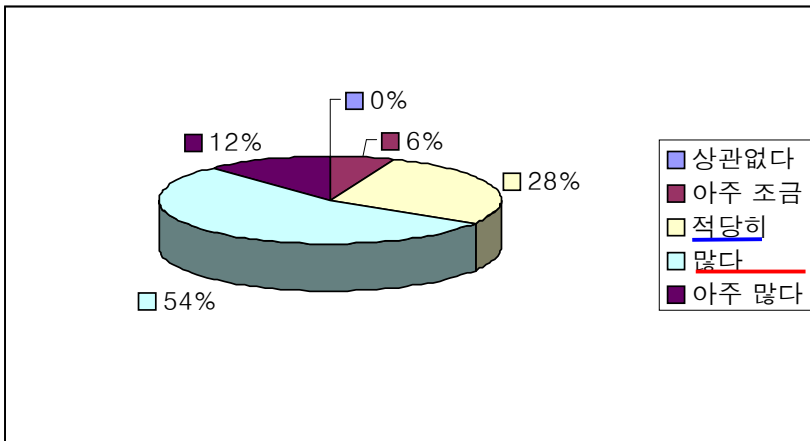


5. 본인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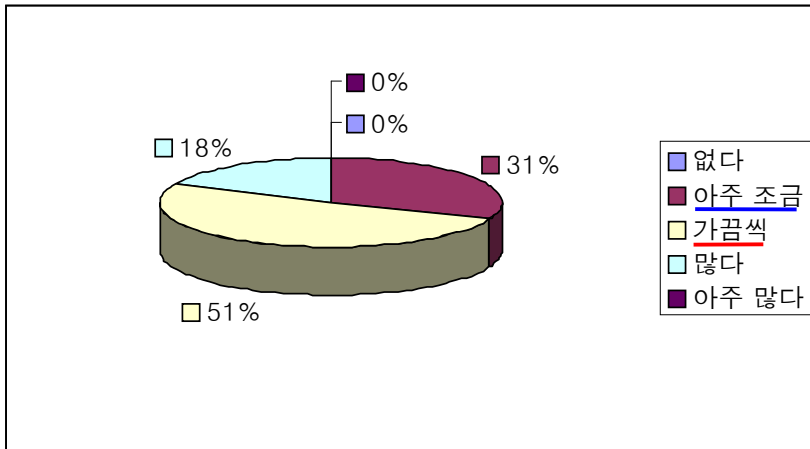


□ 영상미디어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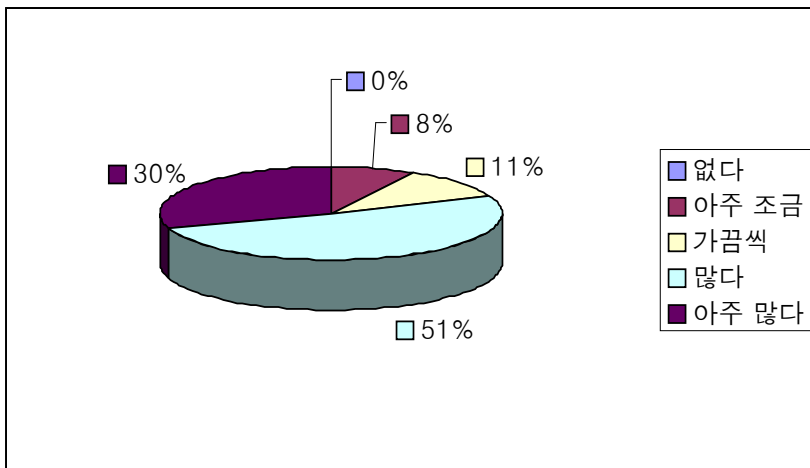
6. 실생활에서 영상미디어가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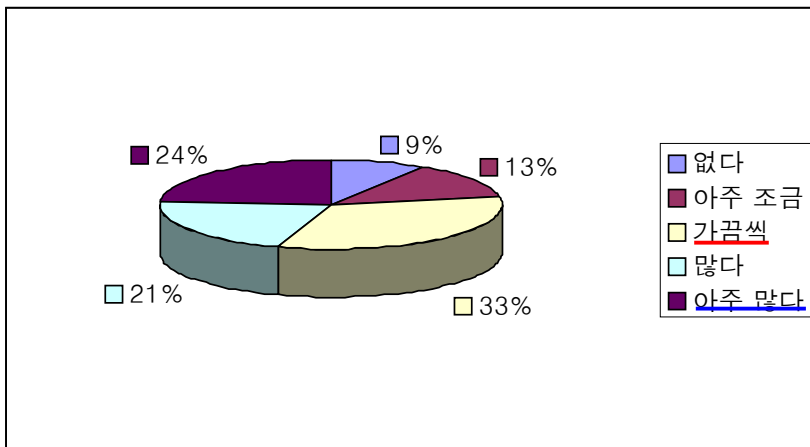
7. 영상물을 보고 난 후, 자신의 소신이나 의견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8. 영상미디어 산업이 향후 어느 정도 발전할 꺼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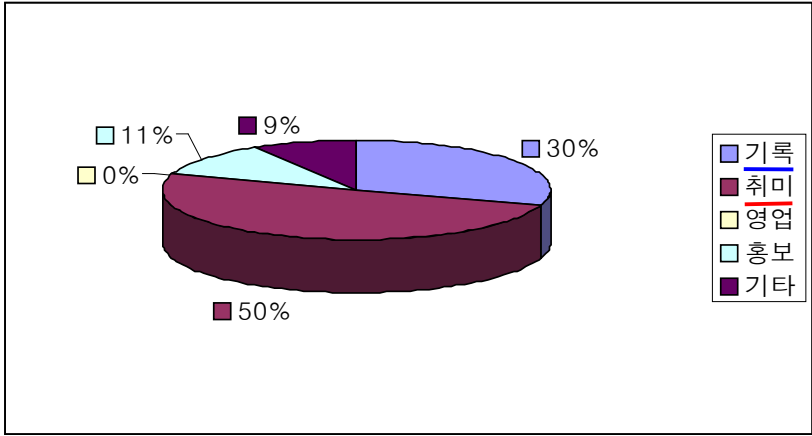


9. 영상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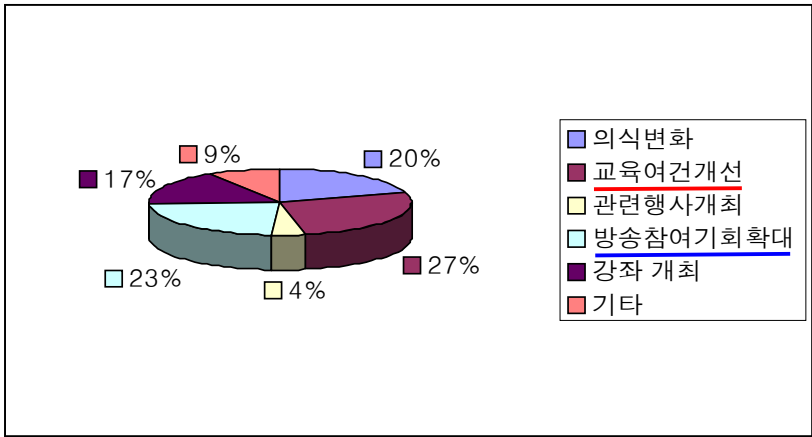


□ 영상미디어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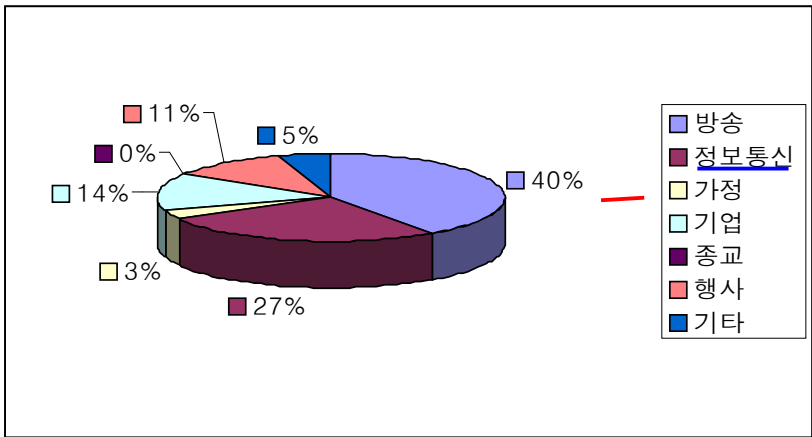
10. 영상미디어가 귀하에게 어떤 목적을 위한 매체인가요?



11. 영상미디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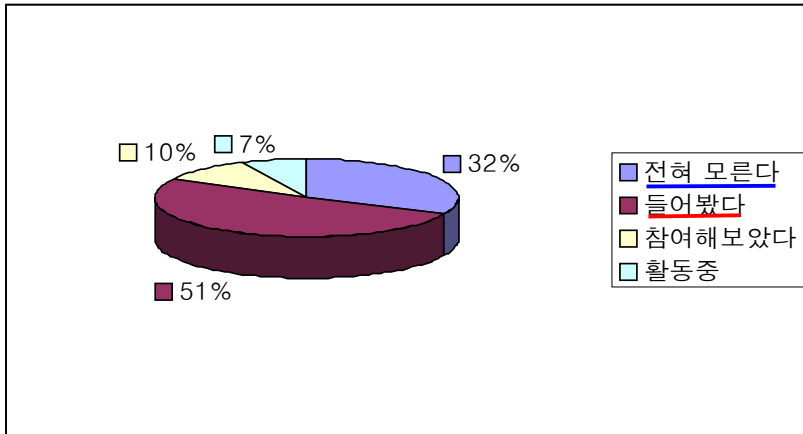


12. 영상미디어가 사회에서 공헌하는 분야 체크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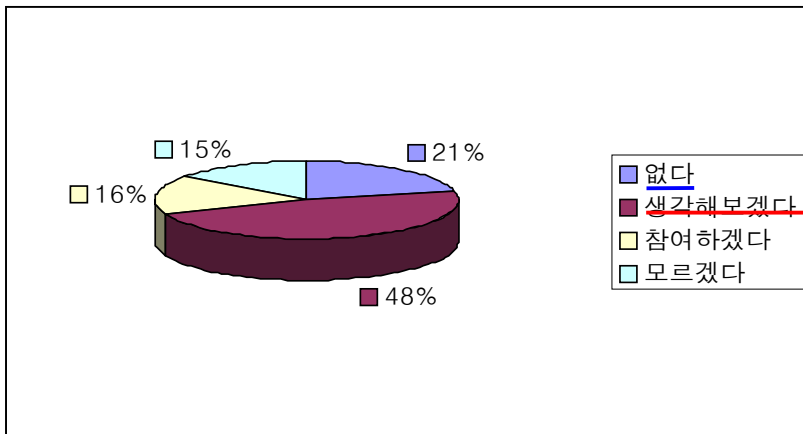


□ 영상미디어 강좌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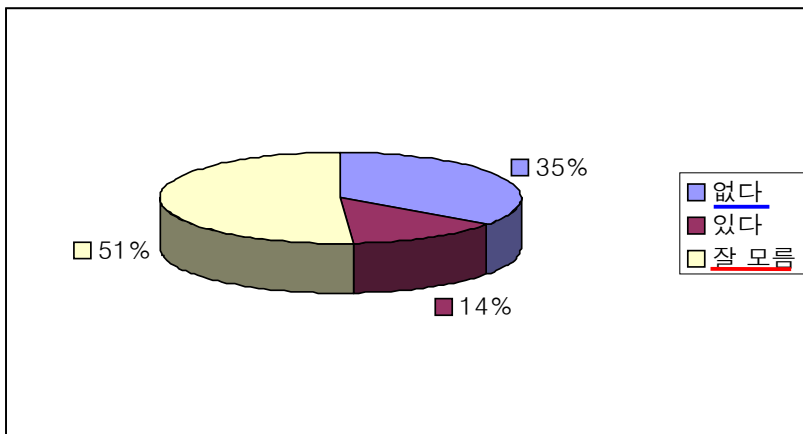
13. 귀하께서는 영상미디어 아카데미에 대해 들어 보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14 영상아카데미가 개최된다면 참여하실 뜻이 있습니까?



15. 주변에 영상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육·홍보사업

청풍명월21 홍보 및 환경교육

1. 사업개요

◦목 적

·도민들의 건전한 환경인식 함양과 지방의제21 실천방향을 설정하여 우리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환경의 중요성 및 의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에 중점을 둠.

◦사업기간 : 2005년 3월 ~ 12월(44개교 - 13,903명)

◦사업대상 : 도내 중·고교생 및 도민

◦교육내용 및 방법

·『청풍명월21』의 범도민 운동을 위한 실천방안, 우리도의 환경 문제 및 개선방안 및 일반환경 교육

·강의식 교육, 『청풍명월21』 홍보·교육용 및 환경 관련 시청각 자료 활용

◦사업비 : 3,200,000원

2. 추진내용

◦3월 : 1차 환경교육 접수 및 상반기 사업 25회(25개교 7,589명)실시

◦9월 : 2차 환경교육 접수 및 하반기 사업 19회(19개교 6,314명)실시

3. 평가 및 성과

·지속적인 지방의제21 홍보와 환경교육을 통한 도 환경개선에 이바지 함.

·충청북도 목표인 환경수도 건설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참 유도.



청풍명월21 소식지 제작

1. 사업개요

◦목 적

- 청풍명월21 홍보 및 충북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기 간행물
-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시군의제 활동공유 장

◦제 호 : 청풍명월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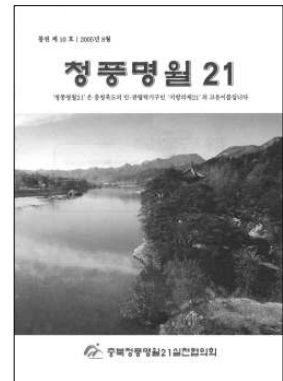
◦소식지 배포대상 :

- 행정기관 : 도내 시·군·공공기관 및 전국 시·도 자치단체
- 의 회 : 도내기초의회 및 전국 광역의회
- 교육기관 : 도내 초·중·고, 대학 및 시·군 교육청, 도 교육청
- 기 업 체 : 도내 주요 기업체
- 기 타 : 도내 NGO 단체 「환경」 및 각급 사회단체, 금융기관, 환경부

◦발행부수 : 1000부

◦발행일: 2005년 8월·12월(2회)

◦사업비 : 5,000,000원



2. 소식지 내용

◦청풍명월21 10호 내용

- 여는글 : 지방의제21... 앞으로의 10년을 위하여
- 특별기고 : 2005 환경교육 한마당을 다녀와서 배움과 나눔, 생명 어울림
- 기행문 : 청풍명월을 찾아서
- 쓰레기 줄이기 사례공모 입상작
 - 최우수작 : 나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 우수작 : 생활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아이디어 제안
Environment Revive Festival(환경살리기 축제)
- 충북 시·군 지방의제21, 청풍명월21 소식

◦청풍명월21 11호 내용

- 여는글 : 조정선수가 아닌 래프팅 선수의 역할주문



- 특별기고 :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 도내환경교육 사례
 -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 : 시민환경지도자대학
 - 충북환경운동연합 : 2005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생태체험교육
 - 충북생명의 숲 : 학교숲을 활용한 체험 환경교육
-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발전 토론회
- 충북 시·군 지방의제21, 청풍명월21 소식

3. 평가 및 성과

- 청풍명월21 및 기초 시·군의제21 활동 대내외 홍보
- 광역의제와 기초의제와의 네트워크

교류 사업

교 류 사 업

◦제1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 2. 15(화) 11:00
- 장 소 : 충청북도청 동관 2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19명 (16명참석, 3명위임)
- 주요내용
 -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05. 2. 23(수) 11:00
- 장 소 : 청주로얄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 4명
- 주요내용
 - 제11차 운영위원회(2005. 2. 15) 위임사항인 추가 사업계획(안) 확정
 -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서 수립

◦청풍명월21 7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5. 3. 4(금) 11:05
- 장 소 : 청주로얄관광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41명(협의회 위원, 도관계자)
- 주요내용
 -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결원 임원 보선 : 한경희 위원 - 감사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05. 3. 4(수) 13:00
- 장 소 : 청주로얄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 5명
- 주요내용
 - 민·관·군 환경발전 대토론회
 - 문장대 온천개발 채 추진 관련 논의

◦제1차 분과위원장 및 간사 회의

- 일 시 : 2005. 4. 20(수) 11:00
- 장 소 : 충북개발연구원 회의실
- 참석인원 : 7명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협의

◦제12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 6. 27(월) 11:00
- 장 소 : 충청북도청 동관 2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참석 13명, 위임 2명)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사항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05. 8. 30(화) 12:00
- 장 소 : 청주로얄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 8명
- 주요내용
 - 2006년도 하반기 사업 논의
 - 운영규정 제 9조 2항에 의거 안상진 부회장이 회장직 대행

◦사회·경제환경분과위원회

- 일 시 : 2005. 9. 23(금) 11:30
- 장 소 : 와우(충북도청 정문 앞)
- 참석인원 : 4명
- 주요내용 : 사회·경제환경분과 2006년도 사업계획 협의
 - 도내 환경포인트 명소화 사업

◦생활환경분과위원회

- 일 시 : 2005. 10. 4(화) 12:00
- 장 소 : 와우(충북도청 정문 앞)
- 참석인원 : 6명
- 주요내용 : 생활환경분과 2006년도 사업계획 협의
 - 동네 짜투리 화단가꾸기 사업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일 시 : 2005. 10. 6(화)
- 주요내용 : 자연형 하천 공법에 따른 식생의 침입 및 정착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일 시 : 2005. 10. 7(수) 17:00
- 장 소 : 뽕나무 한그루(충북도청 정문 앞)
- 참석인원 : 6명
- 주요내용 : 교육·홍보분과 2006년도 사업계획 협의
·환경사랑 글 공모전

◦제13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 10. 14(금) 11:00
- 장 소 : 충청북도청 동관 2층 영상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참석 10명, 위임 5명)
- 주요내용
·항·목(예산)변경 승인 사항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14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 12. 2(금) 11:15
- 장 소 : (주)LG화학 청주공장 본관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4명(참석 11명, 위임 3명)
- 주요내용
·세입·세출 예산 및 항·목변경 승인 사항
·2006년도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 록

1.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사·군 관계자 워크숍 발제문
 - 1) 지속 가능한 충청북도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도약방안 제안
 - 2) 행정과 지방의제21 협력 방안
2. 충북지역의 환경교육 실천조사요약보고

충청북도 지방의제21 사·군 관계자 워크숍 발제문

□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도약방안 제안

1. 지구환경위기와 지방의제21

18세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이용으로 지구환경은 순환의 능력을 벗어나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는 제한된 지구환경 용량을 급격하게 초과하여 지구환경을 치유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수요증가는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타협적인 개념을 요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출해 내었다.

1980년대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풍부해진 이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를 통하여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리우회의에서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들이 “리우선언”, “기후변화협약”, “삼림원칙” 등을 채택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의제21” 속에 담아내었다. 이 회의 결과 각국은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유엔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 또한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한 “지방의제21”을 유엔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지방의제21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지속가능 지역발전전략 보고서이며 지역의 다양한 집단들- 지방정부, 기업, 여성, 청소년, 노동자, 농민, 전문가, 주민, NGO-이 참여한 협약서이고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이 담겨져 있는 행동 계획서이다.

지방의제21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운동을 시작한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제21 관련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혜로운 실천으로 해결되어가고 있지만 몇몇 문제들은 오히려 확대되거나 여전히 뚜렷한 대안 없이 토론만 무성한 실정이다. 지방의제21 관련 법 제정의 과제가 그러하고 광역과 기초의제21과 관련된 효율적 협력방안의 문제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을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요 목적인 광역과 기초의제21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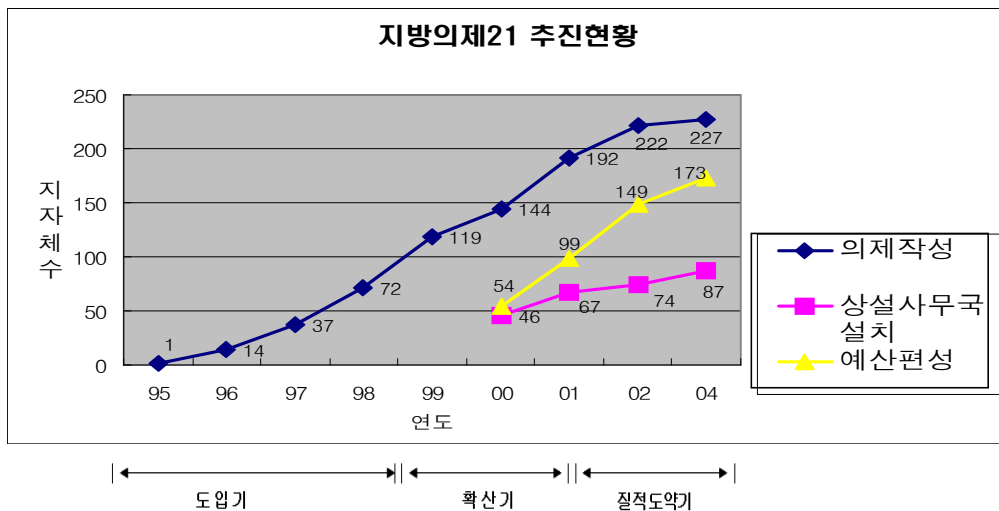
제안해 본다. 글이 서론적 설명에 해당하는 앞부분이 길어진 이유는 관련 내용을 충북지역 지방의제21 관련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2.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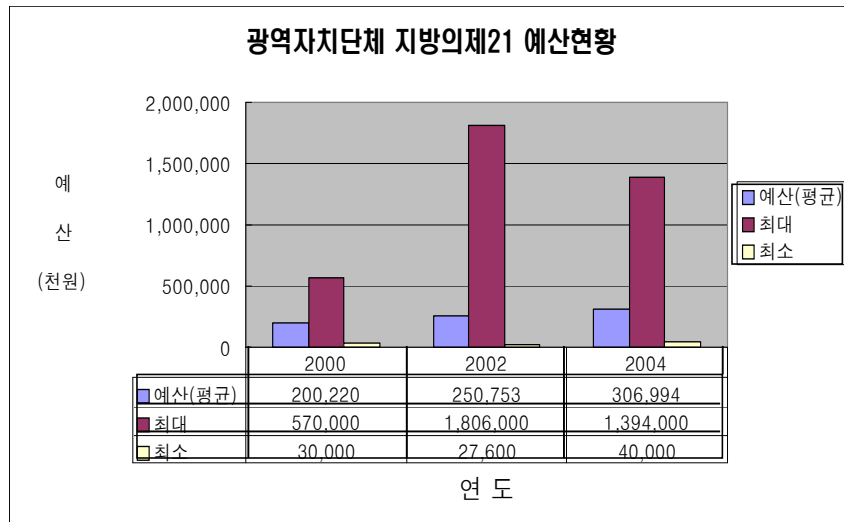
1994년 6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포럼 94’를 전후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활동이 시작된 지방의제21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급속하게 확산·발전되어 왔다.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방의제21의 성과에 대한 각국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리우회의 이후 주요한 성과로 지방의 제21 활동을 소개하였다. 2002년 WSSD에 제출한 ICLEI(국제환경지자체회의)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활동은 세계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2005년 1월 현재 250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16개 광역지자체 전부와 187개 기초지자체 등 총 203개 지자체에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4개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50개 지자체중 91%이상이 지방의제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도 2005년 2월 현재 87개에 달해 자율적인 민관협력기구로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한편 지방의제21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2002년 기준으로, 총 116개, 금액으로 99억 1천3백만 원에 달했다가, 2004년에는 116개, 104억 9천 2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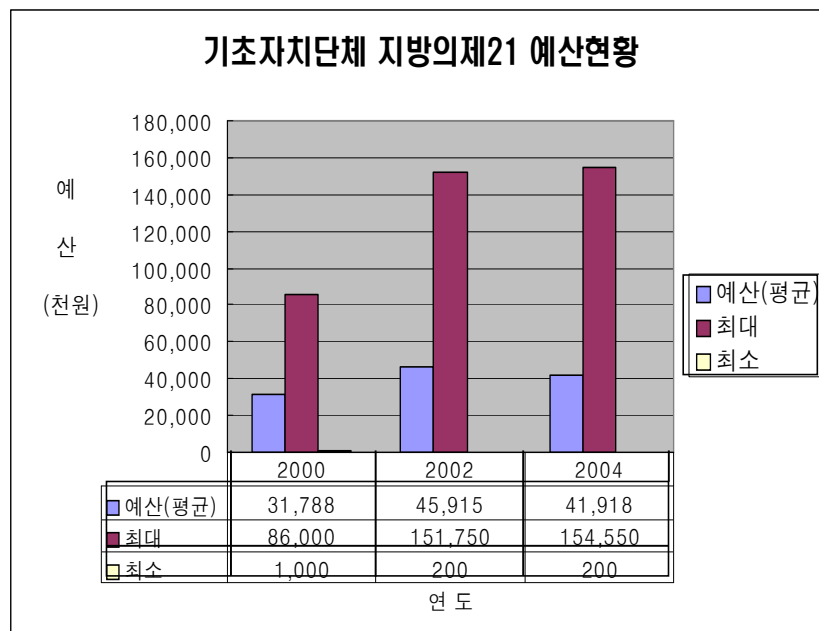
<그림1.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그림2. 광역자치단체 지방의제21 예산현황>



<그림3.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예산현황>



3. 지방의제21의 추진성과와 한계

가. 지방의제21의 성과 1 - 지방의제21 활동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확대

지방의제21은 1)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이며, 2)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며, 3) 실천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순환과정이다. 또한 4)

이를 추진해 나가는 실체적 기구를 의미하며 더 넓게는 5)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과 확대라는 지방의제21의 주요성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후 사용되는 ‘지방의제21’이라는 용어는 위의 여러 의미 중 하나를, 혹은 둘 이상의 복합적 의의로 사용될 것이다.

1) 주민주도의 비전과 계획의 수립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된 지방의제21 작성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역계획 수립관행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주민주도의 지역비전과 계획수립의 경험들을 확산시켰다.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전국 각지의 지자체는 중앙정부로 이양 받은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각종 지역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보다는 관료들과 전문가들에 의존한 효율성만의 추구하여 지역마다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의 토론과 조정, 전문가들의 검토와 조언을 통하여 작성된 시민단체 중심형의 지방의제21은 행정의 일방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와 경험을 제공하였다. 각 지역마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작성된 지방의제21도 많은 편차를 보이지만 지방의제21의 작성과정을 경험한 지자체에서는 많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참여방식과 참여주체들을 미리 조사, 협의하고 계획수립의 주요한 과정마다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제21의 작성경험은 마을단위의 주민계획수립으로 발전하여 ‘당진의 고니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전과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2)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확보

지방의제21이 어느 계획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실천과 평가를 전제하고 작성된 비전과 계획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지방의제21은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함께 작성한다. 지방의제21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시민단체, 행정, 기업 등 각 실천주체별 실천계획과 행동지침을 협의, 약속한다.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환경보전기본계획’ 등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작성되지만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을뿐더러 관련부서의 행정정책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듯이 지자체의 많은 계획들이 형식적인 계획수립으로 끝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의무적으로 수정, 변경하는 사례들이 지적될 때마다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경험들은 비교되곤 한다.

3) 순환적 실천체계의 확립

광주광역시의 ‘푸른광주21실천협의회’은 매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푸른광주의제21’의

지표달성도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의제 21이 순환적 과정을 중요시하여 지방의제21 체계 속에 실천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순환적 실천체계는 지자체의 각종 정책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예방하면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초기 경험에서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잦은 계획의 변경과 폐기로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들을 보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계획이 허술하거나 전무하고 사업의 결과를 반영한 2차, 3차의 후속계획들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지방의제21의 잘 구성된 순환체계는 지자체의 여러 정책수립과 집행, 결과평가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거버넌스의 실제적 기구운영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민(주민)과 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은 매우 협소한 영역(단체장의 자문위원회의 참여)에서만 가능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은 사후 대응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주민투표의 경우 사전에 주민의견의 수렴이라는 사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표결안의 작성과 투표 진행의 과정에서 민과 관의 평등한 협력과 참여가 불안정함이 현실이다. 지방자치 10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강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 열악한 시민사회의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제21 운동은 우리사회에서 거버넌스의 실체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되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 기구 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지자체 또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 물론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 자체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지역차원의 발전된 거버넌스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지방의제21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거버넌스의 개념과 경험들이 정착되고 확산되었다.

지방의제21의 이러한 경험들은 여타의 분야에도 확산되어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들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웠던 환경시설의 설치, 지역 도시계획의 변경,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경험과 참여가 절실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관의 단순협의를 넘어서는 거버넌스가 확산되고 있다.

나. 지방의제21의 성과 2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의 확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궁극적인 미래상을 보여주주기보다는 여기에 이르

는 수단을 표현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지역 비전은 다양하지만 최근들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또한 수단적 가치로 볼 수 있겠지만 지역을 넘어선 지구적 관점의 확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동시적 배려, 지역과 계층의 아우르는 사회 형평성의 확립,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추구로 이를 이해한다면 지역사회가 지행해 나갈 목적적 가치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천 활동을 전개해 왔다.

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개념과 가치의 확산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7개 지자체가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수준과 범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227개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이라는 용어를 서너 번 씩은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제21 운동의 시작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거버넌스이고 지방의제21 운동의 끝도 거버넌스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의제21은 고집스럽게 매우 어렵지만 이 용어들을 사용해 왔다. 지방의제21을 처음 시작하는 교육시간에도, 지방의제21이 정착된 각종 회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홍보물에도 이 용어들은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만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개념은 대부분의 지역계획과 정책들 속에 반영되고 있다. 친환경적 지역개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접근 등등의 말들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방의제21이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변화들이 보다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의제21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린벨트의 해제와 지역개발을 주장하던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마을의 비전과 계획들을 토론하고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이해하게 되고 하천의 생태적 기능만을 주장하던 주부 생태안내자가 지방의제21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천 주변 주민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해 나가는 모습들은 일방적 주장만으로 대립과 갈등이 확대되던 시대를 보내고 타협과 협력, 환경과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개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2)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

금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지구적 환경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구적 환경문제는 이미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우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출발이 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

었으며 1970년대부터 제기된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제21 제28장에 명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는 지방의제21의 모토를 통하여 지역에 매몰되지 쉬운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지구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제21의 확산은 기후변화, 사막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으며 시애틀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지방의제21의 활동사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식들도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클레이 등의 국제기구들의 활동의 소개와 참여, 멜버른 원칙, 알보그서약 등의 지방의제21에의 적용과 실천을 통하여 지구인들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다.

특히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지방의제21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차원에서의 지구적 노력을 생생히 목격하고 돌아오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는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해왔다.

다. 한 계

첫째,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부족

이는 도입단계에서 중앙정부나 전문기관이 추진해야 할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사업에 관한 안내와 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몇몇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역량에 의존하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견된 결과이다. 또한 '지방정부 중심형'에서 확인되는 바 지방의제21을 단순한 보고서로만 이해하고 추진기구 조직 등 실천사업은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진행한 결과,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편차가 크고, 심지어는 공무원과 시민·환경단체들 간의 상반된 인식¹⁾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의 제일 큰 원인은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다. 지방의제21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도입단계를 지나 실천적 평가가 진행되는 제1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때부터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평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가운데 1997년 4월에 지방의제21작성지침의 배포, 2004년 6월에 표준조례준칙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을 뿐이다.

1) 지방정부의 주도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방의제21사업을 하나의 환경단체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예산지원만 많이 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멀리 퍼져있다.

셋째, 추진기구의 지역사회 통합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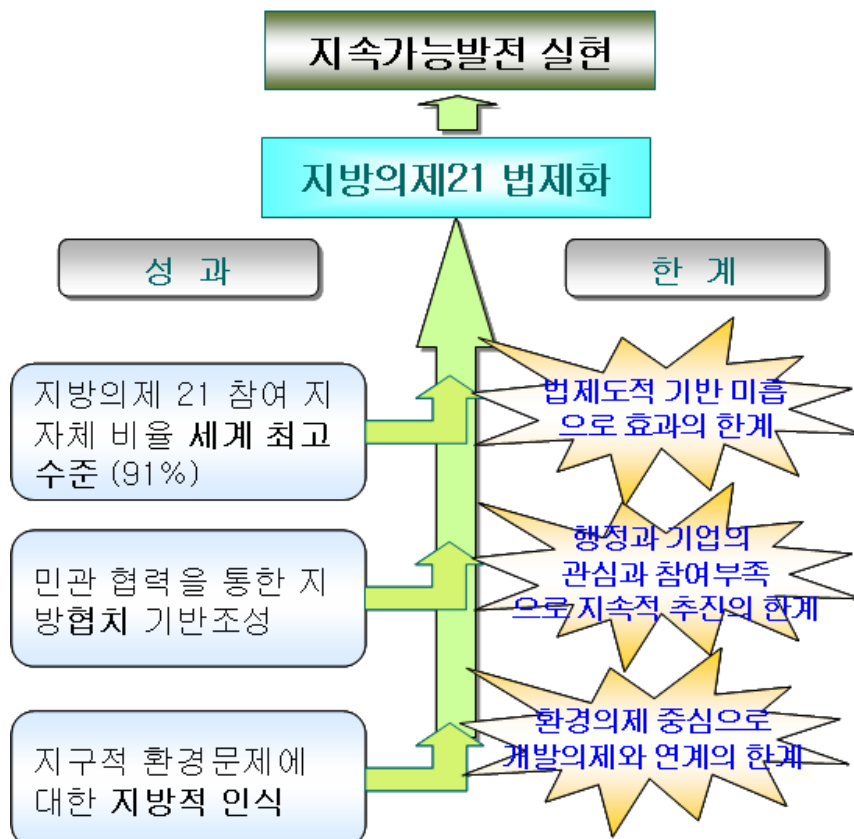
이는 민관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이를 원숙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의 역량이 취약한 현실에서 지방의제21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갈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기보단 중장기적 계획과 꾸준히 계획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도 적은 힘이지만 서로 협력하며 지방의제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넷째, 보고서에 머물고 있는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보고서에 머물고 있는 많은 지역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의 실천의지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작성된 지방의제21이 지역의 각종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평가지표나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실천적인 활동이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지방의제21의 성과와 한계들을 정리하면 <그림>와 같다.

<그림 : 지방의제21 성과와 한계>



4. 지방의제21의 향후 과제

위에서 서술한 지방의제21의 성과들은 완결된 결과이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급하게 정리하였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방의제21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위에서 말하지 못하였던 더 풍부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인 지방의제21의 재작성

시민단체 중심으로 작성된 지방의제21은 원대한 비전과 주민들의 창조적인 생각들이 반영되었지만 지자체의 행정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주민운동의 차원에서만 실천되었으며 지자체 정책으로는 극히 일부만이 반영되었다.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계획이며 지자체의 정책집행력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제21이 실현하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목표는 지방의제21을 행정계획과 지자체정책의 집행절차에 합치되도록 재작성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 4년마다 변경되는 지자체의 비전과 장기계획, 이에 따르는 무수한 정책의 혼선들을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 지방의제21의 재작성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작게는 4년마다 바뀌는 지자체의 도시브랜드, 로고들, 크게는 장기 도시계획의 변경 등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빠져드는 유혹이라면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절차와 동의를 확보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으로서 지방의제21은 우리사회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지방의제21의 재작성운동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계획과 그 추진기구인 지방의제21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2) 거버넌스에의 책임 있는 참여

지방의제21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 일부이다. 물론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은 일부만의 참여 속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시민단체들 또한 협력보다는 비판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제21에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폐쇄성, 불안정한 제도 기반들도 거버넌스의 발전에 장애요소이다.

지역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능수능란한 조정능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역량의 확보가 바탕이 되어 지자체를 설득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집단들의 참여를 확보하여 지자체와 대등한 힘을 갖고 거버넌스를 요청해야 한다. 강한 단체장, 취약한 시민사회라는 우리 현실에서 지방의제21의 성패는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참여확

보를 통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제21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여러 협력 사업을 통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고 지방의제21과의 사업추진으로 거버넌스의 유효성에 대해 체험을 통한 공감을 높여 나가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은 백 마디 말보다는 단 한 번의 효율적인 실천 속에서 체험될 수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제21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계획, 추진하면서 거버넌스에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행정만의 일방적 노력이 갖는 한계들이 명확해 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열린 자세로 거버넌스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지방의제21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예전에 시민단체들에게 경험하였던 피해의식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에서 서로가 보여주었던 미숙함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민들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일상적 주민 생활 속에 자리 잡는 지방의제21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지방의제21의 거버넌스는 정책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강하다. 시민단체들의 주요활동방식이 지방의제21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지지 만 지방의제21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마을의제21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1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 지방의제21의 사업 성격상 주민지도력의 발굴과 육성, 장기적인 마을비전의 작성과 실천추진 등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방의제21 사업 중 중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3년, 혹은 5년의 계획과 안정적인 예산편성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종교기관, 사회시설,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와 마을들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민교육과 훈련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초지자체 지방의제21의 주요 위원들을 주민대표들로 대폭 교체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유지나 단체대표들 중심의 위원구성으로는 여론형성과 지자체 정책반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지방의제21 운동은 어렵다는 것이 지난 10년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5. 효율적인 광역과 기초의제21의 협력방안 제안

지방의제21 활동이 기초 시군지자체로 확산되면서 광역과 기초의제21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동안 지방의제21의 발전과정에서 광역적 역할이 중요시되었던 서울시 등 광역시에서는 광역의제21의 역할이, 시군의 기초의제21의 활동이 활성화 되었던 강원도 지역에서는 기초의제21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경험들을 소중하게 수용하면서 변화된 여건 속에서 광역과 기초의제21과의 효율적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경기도 지방의제21의 여러 활동을 통해 정리된 위 주제의 결론을 제안한다. 경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타 지역의 경험과 고민이 반영되지 못한 우려가 있지만 100만이 넘는 대도시 수원을 비롯하여 5만의 군지역인 연천이 함께 활동하는 경기도의 사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지방의제21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사례를 소개한다.

5-1 광역시도와 기초의제21과의 협력활동 현황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지만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각 지역의 광역과 기초의 협력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란다.

서울 : 25개 자치구에 서울의제21실천단을 구성하여 실천단을 통해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의 협력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인천 : 최근 들어 자치구 지방의제21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뚜렷한 협력틀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음. 공동의 연수와 정보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기타 부산, 대구 등 자치구 의제21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강원도 : 강원도의제21에서 중심이 되어 강원지역 시군 기초의제21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강원지역 지방의제21 소식지 편집회의 형식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제21 강원대회]를 준비하고 있음(10월 20일 예정)

6월 환경의 날 공동사업을 추진함.

전라북도 : 2003년과 2004년도에 공동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시군의제21과 협력틀을 형성해 나갔으나 현재는 부진한 상황임.

전라남도 : 정기적인 시군의제21과의 회의는 없으나 연 1-2차례 공동워크숍, 혹은

전라남도 지방의제21대회 등을 통해 우수 지역에 대한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음.

경상남도 : 경남의제21과 경남지역 시군협력위원회가 협력하며 활동을 진행함.

다른 지역보다 시군협력위원회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연대의식이 강력함.

충청남도 : 작년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시군의제21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연 1-2회 공동워크숍등을 진행하고 있음.

5-2 경기도 지방의제21 추진현황과 네트워크 활동

5-2-1 경기도 기초 시군 지방의제21 추진현황

경기도 기초 시군지역의 지방의제21 추진은 대부분 추진기구를 창립하고 1-2년의 과정을 거쳐 지방의제21을 작성, 발표하고 발표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지역의 지방의제21 활동은 지방의제21이 도입되던 초기시기(96년 - 99년) 전남과 경상남북도, 서울시의 기초 시,군,구들이 보고서로써 지방의제21을 작성, 발표하고 별다른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05년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기초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이 민간사무국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29개 지역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경기지역에서는 추진기구를 창립하기 위하여 6개월에서 1년여 정도의 기간을 실무협의회, 준비위원회 등의 형태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지방의제21의 활동 시작 시기는 좀더 앞당겨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포시의 경우 1999년 12월에 준비팀을 구성하고 1년여 준비 끝에 2000년 12월에 추진기구를 발족하였으며 2002년 3월에 군포의제21을 선포하고 2003년 2월 정기총회에는 1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추진현황

2005. 8월 현재

시·군명	지방의제21 명칭	추진기구 창립일	의제선포	비고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1997. 4.22	1998.12	지원조례제정
포천군	맑고푸른포천의제21	2000.12.15	2002. 3	지원조례제정
과천시	과천화경21	2000. 1.21	2001.11	
광명시	푸른광명21	1998.10.22	1999.12	
구리시	푸른꿈젊은구리	1998. 3. 5	1999.10	지원조례제정

시·군명	지방의제21 명칭	추진기구 창립일	의제선포	비고
부천시	푸른부천21	2000. 1.18	2001. 2	지원조례제정
성남시	성남의제21	1999. 1.22	1999.12	
안양시	늘푸른안양21	1998. 4.16	2000. 5	
의정부시	푸른터맑은의정부21	2000. 4.22	2001.2	지원조례제정
평택시	아름답고푸른평택21	1999. 8.30	2000.12	
의왕시	21세기녹색의왕만들기	1999. 4.30	2002. 1	
군포시	푸른희망군포21	2000.12. 7	2002. 3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2000.10	2002. 3	지원조례제정
안산시	안산의제21	2001. 3.30	2002. 1	
고양시	고양의제21	2000. 8	2003. 3	
화성시	21세기청정화성만들기	1999. 6. 4	2005. 2	
광주시	너른고을의제21	2002. 3.29		
양평군	맑은물사랑양평의제21	2001. 4.13	2003. 3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2002.12.27	2004. 12	지원조례제정
가평군	청정가평의제21	2002.12.26	2003. 12	지원조례제정
김포시	맑은김포21만들기	1999. 1.27	2000. 5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	2000.9	2003. 2	
안성시	안성의제21	2001.12.26	2004. 2	
여주군	여주의제21	2002.12	2004. 12	
연천군	맑은연천21	2001.11.30	2004. 4	
파주시	푸른파주21	2002. 9.27	2005. 2	
남양주시	남양주의제21	2002. 4.22		
오산시	오산의제21	2002. 4	2003. 3	
하남시				
동두천시				
양주군	양주의제21추진협의회	2005. 5		지원조례제정
경기도	푸른경기21	1998. 9. 4	1999. 6	지원조례제정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추진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9년 12월 이전 추진기구 창립지역 : 수원, 광명, 구리, 성남, 안양, 평택, 의왕, 화성, 김포 (총 9개 자치단체)

2000년 추진기구 창립지역 : 포천, 과천, 부천, 의정부, 군포, 시흥, 고양, 용인(8개)

2001년 추진기구 창립지역 : 연천, 양평, 안산, 안성(4개)

2002년 추진기구 창립지역 : 광주, 이천, 가평, 여주, 파주, 남양주, 오산 (7개)

2005년 추진기구 창립지역 : 양주 (1개)

경기도 지방의제21 추진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진행된 지방의제21 관계자(지도자)워크숍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회 경기지역 시,군의제 활성화 워크숍 주요내용

(1999년, 수원 하나은행연수원)

기조강연 :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지방의제21의 작성

주제발표 및 토론 : 경기도의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천의 특징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의 추진특성

수원의제21 사례발표

분임토의 :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의제추진방안 및 시범의제 작성

▪제2회 경기지역 시,군의제 활성화 워크숍 주요내용

(2000년, 대부도 공무원연수원)

주제발표 및 토론 : 푸른경기21 선진지연수활동 보고

분임토의 : 미 수립지역의 활동방안 논의

지방의제21 수립 전략

지방의제21 수립 후 실천방안 논의

전체토의 : 지속가능위원회 구성과 경기의제21 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교류협력위원회 활동 및 기초의제21 네트워크 강화 방안

▪제3회 경기지역 시,군의제 활성화 워크숍 주요내용

(2001년, 여주 한국노총연수원)

주제발표 및 토론 : 지방의제21 평가지표 개발사업의 의의와 현황

경기지역 기초의제현황과 수원의제21 평가사업

워크숍 : 의제실천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및 평가메뉴얼 토론

지방의제21 실무자 교육(사업의 기획과 실행, 예산회계 실무교육)

▪제4회 경기지역 시,군의제 활성화 워크숍 주요내용

(2002년, 양평 남한강연수원)

기조강연 : 녹색거버넌스의 인큐베이터, 지방의제21의 현실과 과제

기획토론 :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의 성과와 발전방안

분임토의 : 운영위원장단회의, 사무국장단회의, 도,시,군 환경공무원회의)

▪제5회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연수 (2003년 5월, 양평 남한강 연수원)

기조발제 :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지방의제21의 장기전략

강연 : 양성평등을 위한 지방의제21의 노력

분임토의 : 권역별 2003-2004년도 공동사업 논의

2003년 이후 실무책임자 워크숍, 시군 기초의제21 운영위원장단 회의, 실무자연수 등 역할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권역별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기초의제21 추진과정은 위 추진현황과 지난 5년간의 연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1년과 2002년을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연수의 내용이 지방의제21을 소개, 설명하고 작성을 위한 실무지침을 교육하는 내용들이 중심이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지방의제21 활동이 확산, 정착되면서 의제지표평가 및 실무자교육(2001년), 지방의제21 활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전망모색(2002년), 활동영역별 분임토의-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지방정부 관계자-등으로 내용과 운영방식 등이 발전되어 왔다.

2005년 8월 현재 31개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추진기구를 창립하고 18개 지역에서 의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 년도 사업계획으로 환류하고 있는 지역도 점차 확산되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만큼은 지방의제21 활동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판단된다.

5-2-2 연대와 협력활동 - 교류협력위원회 활동

2001년 1월 경기지역 기초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사이의 연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의제작성을 완료하고 실천사업을 추진하던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수원, 성남, 구리, 광명 지방의제21 협의회 사무국장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류협력위원회(명칭은 몇차례 변경되었음. 현재 명칭인 교류협력위원회로 사용)는 의제선포 이전 과정으로 추진기구(혹은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들이 확대되면서 사업내용과 활동영역을 확대해 왔다. 연도별 활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푸른경기21 교류협력(특별분과)위원회 활동 (2000년 - 2005년)

- 2000년 1월 27일, 성남,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간담회
성남의제21 사무국장외 22명,
네트워크 구성과 활동계획논의, 푸른경기21과의 연계방안 논의
- 2000년 2월 10일, 성남, 교류협력위 소위원회
수원의제21 사무국장외 3명 (지방의제21을 선포한 수원, 성남, 광명, 구리 사무국장)
교류협력위원회 구성방안 협의
- 2000년 6월 1일, 시흥의제21 구성을 위한 워크숍 지원
- 2000년 10월 19일 - 20일, 대부도 공무원 연수원
경기지역 시군의제21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2001년 1월 8일, 성남, 교류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2001년 2월 20일, 푸른경기 정기총회 -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장 : 정병준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총무 : 유문중 수원의제21 사무국장 선출
- 2001년 3월 23일, 군포, 교류협력분과 1차 회의
- 2001년 9월 26일 - 27일, 여주 한국노총연수원
경기기초의제 실무자연수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 2002년 3월 23일 - 24일, 양평 남한강연수원
경기지역 기초의제21 지도자 연수
- 2002년 11월 7일, 교류협력분과 전체회의, 기초의제21 관계자 40명 참석
- 2003년 2월 19일, 푸른경기21 정기총회, 명칭변경 논의
- 2003년 3월 5일, 수원, 기초의제21 전체회의
교류협력위원회 명칭확정, 정병준(위원장), 임은식(총무) 선출
- 2003년 4월 29일 교류협력위원회 전체회의, 권역별 회의체계 구축
- 2003년 5월 27일 - 28일 경기지방의제21 관계자 연수(양평, 권역별 공동사업 논의)
- 2003년 11월 7일 - 8일 사무국장단 워크숍(오산, 경기지역 환경교육현황 분석,
2004년도 사업방향 협의)
- 2004년도 주요사업 : 동서남북 권역별 공동사업 추진
남부 : 지역 상호간 청소년 하천생태교실
동부 : 한강상류 네트워크 구성사업
서부 :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북부 : 한북정맥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 2004년 7월 15일 - 16일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연수

- 2005년 주요사업 : 2004년도 사업 지속추진
마을만들기, 환경교육사업 등 기초의제21 협력사업 지원
- 2005년 5월 3일 - 4일 사무국장단 워크숍(여주,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비전 토의)

5-2-3. 기초의제21과 광역의제21의 역할 찾기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다. 이중 29개시,군에서 지방의제21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제21 활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나타나 오래 전부터 기초의제21 네트워크활동(교류협력위원회)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의 관계문제는 토론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기초의제21의 추진기구들이 20개를 넘어서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전과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5-2-3-1 광역과 기초의제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가) 푸른경기21의 역할과 전망

- 부분적, 한시적 민관협력기구를 넘어 녹색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간다.
- 녹색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정부의 변화를 촉진한다.
-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집단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및 의제와 평가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모색과 정책에의 반영촉구
- 녹색거버넌스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 시민, 기업 등에 대한 교육기능강화
- 경기지역을 비롯 국내, 외 관련자료 수집, 정리하여 효과적 활용위한 시스템 구축

나) 31개 시군의제21의 역할과 전망

- 기초지역 녹색거버넌스 실현
- 시민사회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변화촉진 노력하되 광역에 비해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여 마을단위의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력 향상에 힘쓴다.
- 지역실정에 맞는 의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체계구축과 구체적인 실천 체계구축 및 집행강화

- 활동결과에 따른 대안 모색 및 정책반영 촉구, 광역 및 국가단위의 정책변화에 대해 네트워크조직과 푸른경기21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촉진

다) 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전망

- 경기도 31개 시,군의제 추진기구의 네트워크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추구
- 경기도 행정체계에 따른 공동의 실천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사업 추진, 사업결과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 및 반영촉구
- 산과 하천, 습지, 공단 등 자연 및 생활환경의 공유에 따른 공동의제 개발과 시민(주민) 참여 실천사업추진
- 광역 및 정부에 대해 기초의제21의 의견반영 노력

정리해보면 광역의제는 정책과 교육, 홍보, 지표개발,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의제는 시민참여실천사업의 확산, 지표모니터링활동, 마을의제21 등 작은 단위 일상 실천사업 추진, 풀뿌리 주민자치운동 활성화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광역과 기초사이에 불합리한 권한을 재 정립하고 재정과 감사, 인사권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의존 관계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효율적 협력관계도 재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의제에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지표모니터링활동을 전개하고 광역의제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며 익년에 또 다시 모니터링하는 순환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면 광역과 기초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제 추진기구들은 자주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와 사례들을 교류하고 인근 지역들의 인적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하천이나 산 등 자연환경에 맞는 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의제발굴과 사업추진을 통해 인근 의제와의 상호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지난 3-4년 동안 축적된 활동경험은 자연스럽게 의제사업의 확산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양천네트워크, 평택호물줄기 의제개발, 주한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공동대응, 서해안 갯벌 살리기 등등은 좋은 공동의 의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10년을 위하여

지방의제21운동은 10년의 역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양적인 확대를 통해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면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희망을 그려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계획과 정책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행히 지난 1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위에서 제기하였던 과제들뿐만이 아니라 제기하지 못하였던 여러 문제들-환경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 보고서로 그친 지방의제21의 재작성을 통한 실질적인 운동 추진, 지방의제21의 제도화요구,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 노력의 부족-을 포함하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글로써 정리되는 순간 해결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의지이며 노력이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구하려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최선의 해답임은 분명하다.

□ 행정과 지방의제21 협력방안

I. 청풍명월21 성립

가. 지방의제21의 배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179개국의 정부대표와 NGO 대표들이 모여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지침서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의제21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추진토록 권고됨에 따라 1995년 말부터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지방정부, 기업, NGO, 시민들이 모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지방의제21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청풍명월21” 탄생

1997년 6월 5일 충북환경선언문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 21에 근거하여 1997년 지방의제21 제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별 지역개발방식의 제시, 쾌적한 자연 및 생활공간의 창조, 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의 설정,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한 우리도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이자 실천계획인 “청풍명월21”을 1997년 12월 27일 수립하여 1998년 4월 28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1998년 5월 28일 충청북도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1998년 6월 5일 『청풍명월21』 범 도민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도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청풍명월21의 의제가 제정된 후 민간 주도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과 지방의제 실천운동을 환경과 담당공무원이 전담하여 추진해 오다 1999년 7월 9일 환경·사회단체, 기업체, 학계 등 33명으로 구성된 『청풍명월21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민간 주도의 추진기반을 마련 오늘에 이르고 있다.

II. 청풍명월21 지원현황

가. 예산지원 및 지원근거

1)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 고
총 계	59,000	101,000	84,000	
예산지원	58,000	100,000	75,000	
후 원 금	1,000	1,000	9,000	

2) 지원근거

지원근거는 충북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자체 내규인 협의회 운영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개별법령에 의한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충청북도 도비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한 법령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청풍명월21 실천 활동 지원

민간단체이면서도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도는 협력·지원기관으로 의제 실천계획 수립, 공모사업,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결산 등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방의제가 추구하고 있는 민·관 협치의 협력자로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워크숍, 토론회, 심포지움 등 지방의제간 연대사업 및 교류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의제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장소마련, 일정결정,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석하여 민·관 협력자로서 의제실천의 한 일원으로 지방의제가 추구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III. 청풍명월21 주요 추진실적

가. 최근 3년간의 주요 추진실적

그 동안 행정기관과 주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민관협동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 도시환경개선, 쓰레기 감량화, 대기 및 수질개선에 공동 노력하여 친환경적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연

도별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충북도가 추진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사업, 생태공원화 사업 등은 청풍명월21 의제가 제시한 주요 사업의 일부와 부합되는 사업으로 그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1) 2002년 : 하천수생식물 식재사업, 청풍명월21 환경정책 포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참가(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 타운), 청풍명월21 소식지 발간 등 8개사업과 각종 심포지움 및 워크샵 등 추진

2) 2003년 : 청풍명월21 홈페이지 구축, 맑은물 보존을 위한 수돗물 절약 운동, 환경사랑 사진 공모전, 세계 제대로 알고쓰기 운동의 1개 공모사업 등 11개 사업과 각종 교육홍보 사업 및 심포지움, 워크샵 등 추진

3) 2004년 : 청정환경복원 전문가 초청 지식강화 프로그램 개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등 8개 공모사업, 청풍명월21 3기 위원 구성 및 연찬회 등 17개사업과 각종 교육홍보 및 심포지움, 워크샵 등 추진

나. 문제점

전략과 계획이 담긴 청풍명월21의 의제작성이 의제21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광역의제로서의 그 동안 실천해온 사업들이 의제의 목적과 부합되고 민·관 협치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의 지원, 사무처 상근요원의 지위와 사무처의 위상 등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1) 의제21 기본원칙에의 접근성

청풍명월21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이후 협의회, 사무처 등 추진조직이 구성됨으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독창적인 행동계획이 제시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목표제시, 시민, 기업, 행정기관 등 지역구성원간의 협의와 합의, 계속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평가수단 등 의제21의 기본원칙의 접근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의제21에서 제시한 사회·경제부문, 자원의보전과 관리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부문, 실천수단 등 4개 부문의 행동계획에서도 자원의 보전과 관리부문에 집중된 환경분야 위주의 실천계획을 담고 있으며 실천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의제의 실천

그 동안의 추진성과중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 수생식물 식재사업, 시·군 대표자 간담회 등 광역과 시·군간 의 연대사업 등에

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청풍명월21 의제가 제시한 도시환경, 농촌환경, 대기환경,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경제, 토지이용 등 확대된 과제들의 실천은 미약하거나 또는 실천하지 못하고 환경 분야 위주의 실천 과제들만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의제 실천의 평가

충북의제인 청풍명월21이 담고 있는 전략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과제들에 대한 평가 지표나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실천한 과제들이 올바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가 창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제기된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환류(feed back)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4) 예산지원

청풍명월21에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없이 도비보조금조례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실천을 중심으로 한 행동계획이 예산과 연계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이 연기·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5) 사무처 직원의 역할 및 지위

지방의제 사무처 직원은 매우 폭넓고 다양한 기본지식이 요구되며 행정, 시민단체, 기업 사이에 협상을 이끌어야 하고 실천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청풍명월21 경우 사무처 직원으로 사무국장 1명과 회계와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간사 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사무처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운영규정은 사무처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무처의 상근자에 대한 복무나 보수에 대하여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의제를 실천하는 사무처 상근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도비지원 의무규정이 아닌 관계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재원확보 및 처우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6) 사무처의 위상

도비와 일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풍명월21은 그 목적이 공익적이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민간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행정은 동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의견개진 등의 제한적 역할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협의 기구인 협의회는 관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행정을 무시한 자율단체로 보기 힘들어 협의회 위상이 애매모호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V. 의제21 협력방안

가. 청풍명월21과의 협력방안

광역 의제21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청풍명월실천협의회는 조직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로 보아야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적이면서도 행정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민·관 협치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행정기관인 도는 실천협의회 조직, 활동 등을 지원하는 협력·지원기관으로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의제21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처 요원의 지위 확보와 의제21 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는 법적·제도적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중앙부처,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충북도의 경우 지방의제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노력해 왔으나 조례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환경사업 단체라는 인식의 개선과 의제21의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환경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업무분장을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동안 추진해온 의제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위주의 관련활동에서 확대된 의제활동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식개선 활동 방향으로의 전환과 의제21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익적인 사업이란 인식확보, 민·관 협치 기구라는 점을 의회, 언론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의 각종 정보에 관한 자료화 사업, 지역 활동가들을 재교육, 신규 활동가들을 교육시키는 사업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행정은 사업화의 기틀 마련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행정, 기업, NGO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나. 도와 시·군의제간 협력방안

충청북도의 지방의제21 현황을 보면 12개 시·군(광역은 제외) 가운데 12개 시·군의 의제 수립 완료 되었지만 시·군 가운데 사무국과 상근 직원이 있는 의제 3개 시의제(청주, 충주, 제천) 이외에 9개 군단위 의제는 환경과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

또한 사무국이 있는 시의제에서도 상근으로 활동하는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초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청풍명월21과 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풍명월21과 시·군의제21은 지방의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 분담과 연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광역의제21에서는 다양한 지방의제21 관련 정보제공, 교육과

훈련, 연수활동 추진, 권역별, 혹은 공동의제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활동,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등 지방의제21 활동을 위한 기반강화사업을 주요활동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시·군의제21에서는 사무국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 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제간 협력방안

청풍명월21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한 것은 2003년부터이며 주로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제21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내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합의, 즉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성공과 실패는 시민·사회단체 행정과 지역주민, 기업이 얼마나 긴밀히 파트너십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지방의제21 성공은 3자의 파트너십에 이루어진다. 특히 의제21의 파트너십은 행정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보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특정한 성향을 갖는 집단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해 온 사회단체를 포함하여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까지 폭 넓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 기구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제21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협력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제의 공동 발굴

둘째,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지방의제21이 유연성 조직으로 라운드테이블방식의 토론과 대화 창구 역할.

셋째, 의제21의 정책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환류 등을 들 수 있다 1)

1) 주민참여와 시민사회단체 협력을 위한 제3회 충남 NGO - DAY 자료집 85P(2004. 12. 2)

청풍명월21의 경우 목적의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수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기초지역의 풀뿌리 시민운동단체들을 육성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다방면으로 민·관 협력이 확대되어 성과가 풍부해 지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이 강화되면 청풍명월21 활동 또한 심화되어져 나갈 것이다.

청풍명월21에서는 행정과 시민·사회단체간 나아가 시민들과의 교류 및 정보교환, 상호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행정,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협력방안의 한 방법일 것이다.

V. 결 론

1995년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를 만들어 의제21을 추진하게 된지도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각종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제21의 문제점, 발전방안,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일부 지방의제에서는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환경부분에서 벗어나 경제, 관광 등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재작성하거나 재작성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다.

주제 발표를 통하여 청풍명월21의 의제,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행정, 광역의제·기초의제, 의제·시민단체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의제21의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만이 지방의제가 나아갈 방향이며 지방의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마친다.

충청북도 사회환경교육 설문조사 연구보고 요약

I. 서 론

1. 현황조사의 배경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에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교육은 환경오염의 복원 등과 같은 사후 처방의 교육에서 사전에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환경교육은 교육과정에 환경과목을 도입하여 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제도적 그리고 양적으로 환경교육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은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을 말하는데 교육기관으로는 민간환경단체, 일반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 정부 혹은 지자체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체험학습의 확대와 주5일근무제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가 중요시됨과 동시에 사회환경교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 현황조사의 필요성

환경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환경교육의 의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현상의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교육의 양적성장으로부터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여건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충청도내의 각급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실태조사방법

본 조사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문헌을 통한 문헌자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교들에게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았다.

설문지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조사경험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설문내용

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단체현황과 재원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내용과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 등을 조사하였다.

II. 환경교육의 이론적 배경

1. 환경교육의 목적

환경교육의 목적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 미치는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제 영향들의 복합적인 연관 관계를 인식하게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위 환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과 관련성을 알게 하며, 복합적인 관련성 내에서 생각하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전략에 도달하는 능력을 촉진시키며, 정치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지니게 하고, 개별적인 규범과 상황 파악의 표준을 의식하게 하며, 환경적용에 알맞은 미래의 설계, 규범, 가치관 등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환경교육은 학교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이외의 사회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의 차이는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와 교육대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학교환경교육은 교육주체가 자격이 있는 교사로 한정되지만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인물이나 기관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등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도 환경교육을 실시하면 사회환경교육이 되는 것이다. 학교환경교육은 그 대상의 자격이 연령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되나, 사회환경교육의 대상은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되며, 설령 학생들이라도 학교를 떠나서 사회기관에서 환경교육을 받으면 사회환경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환경교육에서의 교육대상은 연령이나 기타 자격 등에 의한 제한이 없다.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교실이나 실험실 등으로 한정되지만, 사회환경교육에서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강의실이든지 강의실 밖을 나와 자연 속에서든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진행시킬 수 있다. 교재면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은 표준화되어 있으나 사회환경교육은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며, 재정적인 면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은 공적인 교육재정으로 운영되나 사회환경교육은 사적인 재원으로 프로그램과 기관 등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이 어렵고 피교육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회환경교육은 사회교육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비형식성'을 띄고 있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인력, 교재 등에 있어서 표준화하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

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이며, 환경교육은 이러한 인식의 심화,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환경교육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체험환경교육의 시대라 할 만큼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환경교육을 주도하여 온 이러한 환경교육의 변화가 학교환경교육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김인호 외, 1998)

사회환경교육의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문환경단체, 일반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3. 환경교육의 기본원칙

오늘날 환경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에서 언제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 또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대안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연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환경위기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인간중심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자연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자연관에 기반을 둔 환경교육은 새로운 환경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한다.

첫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여 사람의 행동양식(Life Pattern)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차원으로, 자연보호, 공장에서 매연·폐수의 감시, 쓰레기 줍기 및 하천정화활동 등 기존의 환경교육의 고식적인 틀에 매여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근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버리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시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하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로 실제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환경교육은 윤리교육이며 따라서 가치관교육이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셋째,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여건과 국제적인 환경교육 추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환경교육은 아직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환경문제에 관한한 튼튼한 이론적인 바탕과 더불어 충분한 이해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환경민주주의의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위주의 체험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최석진 외, 2000)

4. 최근환경교육의 현황 및 전개

1)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자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변하였다. 지금까지의 개발 주도의 정책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을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도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인정 생물다양성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정부 부서의 환경보전 목표에도 이들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운영을 표방하고 있어 학교교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교육 실행

사회의 여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민간단체가 먼저 시도하게 마련이다. 학교외 환경교육도 그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실행의 빈도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과도 일치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하는 민간 환경·사회단체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숲, 하천, 갯벌의 중요성이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홍보되어 해당 생태계를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자 이러한 변화도 민간단체가 먼저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3) 사이버 세대 등장에 따른 사이버교육 공간 확대

환경교육은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

으로 대다수의 피교육자가 청소년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과거보다는 세대간의 의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설정에 세대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차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컴퓨터와의 친밀도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보면 정의하자면 가상공간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뛰어난 사이버 세대라고 한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 방식보다는 컴퓨터를 통하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환경문제와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실행 증가

지금까지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중심으로 한 교실환경의 반동으로 현장 체험과 생태계를 직접 방문하여 자연을 배우려는 교육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확하게 정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환경교육을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서 즐기려는 일종의 교육여행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자연(또는 생태) 관광 또는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늘면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자와 안내를 하는 안내자로 역할이 구분되고, 안내자는 해당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게 마련이어서 자연 여행이 환경교육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5. 21세기 환경교육의 방향

1)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

21세기 “환경의 시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이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목표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겠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는 환경친화적인 환경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뚜렷한 가치관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현대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에서는 자주 많은 이론과 수식, 표, 그래프를 동원하여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위기의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환경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에게 의미있는 자기환경으로 받아들여 환경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자기환경화'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이선정 외, 1998).

따라서,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위한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cyber) 환경교육

가상환경체험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정의 하나인 탐구활동영역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교사들에게도 환경관련 학습자료는 물론이고, 환경관련 지식, 주요정책, 국제동향정보 등 환경학습자료와 유기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환경

학습자료센타로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교육훈련 및 보유하고 있는 환경교육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환경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환경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5)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

21세기에는 환경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를 알리고, 선진사례를 우리에게 보급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6)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의 개발, 시범학교 운영 시 지역의 기업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최근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대비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역량을 함양시켜 미래 환경보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III. 충북도내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방법 및 내용

충북도내의 시민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180곳에 설문을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 및 E-mail로 발송 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3부중 통계처리에 사용할 수 없는 응답한 설문 2부를 제외하고 31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각 문항의 내용은 크게 단체의 환경교육 재원과 인력에 대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것으로 크게 구성되었다.

2. 분석 및 고찰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

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환경교육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기업 등도 사회환경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은 강한 현장성을 갖는다. 이를 통하여 감수성을 일깨우는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환경교육은 자발적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회환경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사회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2) 전문적인 강사들 중심에서 훈련받은 활동가로 사회환경교육의 지도력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 3) 재정의 피교육자 부담에서 공공재정의 활용으로 재정이 변화해야 한다.
- 4) 개별조직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족한 인력과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서로의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V. 충청북도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충청북도내의 초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 발송 후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09부 중 통계처리에 사용할 수 없는 응답한 설문 17부를 제외하고 192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각 문항의 내용은 사회환경교육과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의 환경교육 재원과 인력에 대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것으로 크게 구성되었다.

2. 분석결과 및 고찰

학교환경교육이 행하여지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초중학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시 준비 때문인지 40%정도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은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아직은 환경교육에 투자하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교육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3. 학교환경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외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외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의 환경담당교사들이 앞으로 5년 후에도 계속 담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58%가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 응답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학교의 환경교육 강사는 교사가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서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좀더 늘려 전문가들이 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환경교육의 결정단위는 학교장에 의한 결정과 담당교사의 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은 더 많은 부분에서 담당교사와 교사회의 구조를 거친 의사결정의 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7. 환경교육의 커리큘럼은 주로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초청된 교육 참여 강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정기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8. 환경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자료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 사용한다는 응답과 비디오나 오디오를 활용한 교육자료 활용, 표준화된 교재활용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자료의 정리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자료의 정리와 보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다.
9. 학교환경교육에서의 주된 파트너는 환경교육관련 단체로 나타났으며, 주된 파트너가 없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학교환경교육에서도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형성도 충분히 되어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등이 함께 하는 환경교육네트워크 형성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V. 충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올해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2005-2014, 이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²⁾이 시작된 해이다. 따라서 지난 3월 1일 뉴욕에서 UN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이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착수식이 거행된 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6월 28일 나고야에서 이의 시작을 알리고 노력을 다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국가 수준의 논의와 노력은 주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논의와 노력은 지방의제21이 결성된 이후 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의제21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실행을 이와 잘 관련짓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노력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 이들 개념의 단초가 되었던 환경 및 환경교육관련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환경교육의 흐름

가. 환경교육의 세계적 흐름

환경교육을 시대적으로 고찰해 보면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환경교육이 정의되고 촉진되는 방식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 환경교육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환경교육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환경교육의 뿌리는 1960년대 자연 연구와 현장 답사(fieldwork)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며,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및 환경교육과 관련된 많은 국제회의와 협력이 촉구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는 환경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환경에 대한 공적인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환경교육이 더욱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전체론적인 철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1990년대는 환경과 개발 문제에 관한 관심을 통해 환경교육의 초점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2)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DESD)

나.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흐름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흐름은 먼저 1980년대 이전의 태동기, 1981-1991년까지의 성립기, 1992년 이후의 정착기로 구분될 수 있다(남상준, 1995). 태동기에서는 환경교육이 자연보호 운동이나 공해 교육과 같이 이해되기도 하며,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립기의 초반까지도 계속되나, 후반부에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며, 학교 환경교육에도 도입되게 된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이재영(2003)은 계몽의 시대, 지식의 시대, 체험의 시대, 참여의 시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UN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러한 해석들은 지속가능발전에의 참여 주체, 역할과 관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해석이 되든 결국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중요성이 전면으로 부각된 것은 199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ED)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 9, 10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담고 있는 의제21의 36장 '교육, 대중의 인식 및 훈련'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전반에 걸쳐 검토와 조정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2005년 유네스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 이행계획 초안을 발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방향과 전략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교육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당사자 사이에 연계, 네트워크, 교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비전을 형성하고 사회적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교육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개발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임무는 가치관을 변화, 증진시키는 것이며, 특히 모든 이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경제 정의에 대한 헌신, 다음 세대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동체와 문화 다양성, 관용과 비폭력의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관의 증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주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방에 뿌리를 두고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한 지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각 실행 주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사회, 환경, 경제 및 문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되,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10년 계획의 의제와 구체적인 활동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VI. 환경교육발전방안

1. 사회환경교육 발전 방안

(1) 사회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환경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장(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공공적인 시설을 만들어 사회와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교재 등을 표준화 하고 보급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단위에서 자유롭게 이용과 활용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가 중심에서 훈련받은 활동가로 사회환경교육의 지도력 강화

환경교육의 강사를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중심의 환경교육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교육이 필요로 하는 현장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을 교육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환경운동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3) 피교육자 부담에서 공공재정의 활용으로 재정의 변화

현재의 사회환경교육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운영비와 교육참가자들의 참가비로 실시되고 있거나,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환경교육이 뿌리내리는 토양을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사회환경교육이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는 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회환경교육의 재원을 부담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4) 환경교육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연대와 파트너쉽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교사와 교사, 환경단체와 환경단체끼리의 파트너쉽은 물론 다양한 주체인 학교, 사회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연대도 중요하다. 각각의 단위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학교환경교육 발전 방안

(1) 지역 사회환경교육과의 연대활성화

학교의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교육의 한계와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의 만남의 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접점에서 서로 보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환경교육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많은 단체들이 아직도 학교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 내용 방법들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를 충분히 하여 학교환경교육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학교환경교육의 한계를 학교단위와 협의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 교사대상의 환경교육 연수프로그램의 확대

학교환경교육을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는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내는 것이다. 학교의 특성상 일상적으로 만나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대하는 교사의 모습에서 학생들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고 환경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학교환경교육은 많은 발전과 확산이 있을 것이다.

(3) 청풍명월21 및 시군의제21의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학교와 관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의제21 기구들이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준과 다양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들의 부족한 재정력을 뒷받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큰 틀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환경교육이 의제21사업과의 연계를 가지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확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의 의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